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전기적 스토리텔링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정진욱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Jinwook Chu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BIOGRAPHICAL STORYTELLING OF DAVID IN A VIEW OF TRANSFORMATIONAL FAITH

Jinwook Chung

Live the Story, Seoul

The problem that arises when faith education pursues religious ideals is that religious failure is regarded as something that should not happen. However, in the reality of a faith journey, religious failure intersects with religious success and is experienced repeatedly. This gap between religious ideals and reality calls for faith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cally integrating religious successes and failures that occur in the faith journey.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esent a faith education model for it. The specific purpose is to interpret the Bible texts related to Davi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onal faith and present them as biographical storytelling.

The religious educational value of biographical storytelling in addition to the story method is as follows. First, it helps read the Bible as one story. Second, it helps look at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death. Third, it shifts the attention from one character's storytelling to God's storytelling. Therefore, biographical storytelling is a very ideal method of faith education in applicable situations. The view of transformational faith begins with James Loder's theory of transformation. The theory of transformation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conflict to conviction through four-dimensional transformation. It presents a realistic model of faith journey that, combined with universal cognitive experience and neuroscientific knowledge explaining the transition from conviction to conflict, is forced to repeat the transition between conflict and conviction. David's faith journey in the Bible, interpre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nsformational faith, repeated success and failure, or rise and fall, from the time he was anointed to death. He was no better a believer than us, who was not free from repeated religious failures despite God's greatest grace.

What is expected by presenting this David's journey of faith through biographical storytelling is to predict failures that would have already begun at the time of religious success, discover them, reveal them, and experience four-dimensional transformation with the failures as a steppingstone. What is necessary for this is to follow the habit of reflecting on oneself in front of God and to pass through the story of Jesus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on the cross.

국문초록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전기적 스토리텔링

정진욱

리브더스토리, 서울

신앙교육이 신앙적 이상을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는 신앙적 실패를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로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신앙 여정의 현실에서 신앙적 실패는 신앙적 성공과 교차하며 반복적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신앙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신앙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성공과 실패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관점의 신앙교육을 요청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앙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윗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변형적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전기적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이야기 방법에 더하여 가지는 신앙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한다. 둘째, 인생을 죽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한다. 셋째, 한 인물의 스토리텔링에서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시선을 옮기게 한다. 따라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매우 이상적인 신앙교육 방법이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제임스 로더의 변형 이론에서 출발한다. 변형 이론은 4차원의 변형을 통한 갈등에서 확신으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이는 확신에서 갈등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인지론적 경험과 뇌과학적 지식과 결합하

여 갈등과 확신 사이의 전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신앙 여정의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한 성경 속의 다윗의 신앙 여정은 기름부음을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공과 실패 혹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다. 그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신앙적 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와 다름 없는 신앙인이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 여정을 전기적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대하는 것은 신앙적 성공의 시기에 이미 시작되었을 실패를 예측하며 그것을 발굴하여 드러내고 발판삼아 4차원의 변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과하는 것이다.

목차

감사의 글	ix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주제, 방법	2
2 전기적 스토리텔링	6
2.1 용어에 대한 고찰	6
2.1.1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6
2.1.2 전기(biography)	8
2.2 신앙교육과 전기적 스토리텔링	10
2.2.1 성경 읽기	10
2.2.2 인생 읽기	13
2.2.3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읽기	15
3 변형과 신앙	18
3.1 로더의 변형 이론: 변형의 논리와 4 차원의 변형	21
3.2 변형과 신앙 여정	25
3.2.1 확신과 갈등의 순환	26
3.2.2 4 차원의 변형을 위한 신앙적 요소	30
3.3 변형적 신앙의 관점	32
4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한 다윗	36
4.1 심리학적 성서 해석의 관점	36
4.2 다윗 본문 해석	38

4.2.1 출생에서 사울의 죽음까지	39
4.2.1.1 다윗의 유년시절과 기름 부음	39
4.2.1.2 골리앗을 넘어 승승장구하다	42
4.2.1.3 사울에게 쫓기다	46
4.2.2 왕이 된 후 밋세바 사건까지	51
4.2.2.1 왕이 된 후 밋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51
4.2.2.2 밋세바 사건	58
4.2.3 암살롬의 반란에서 죽음까지	68
4.2.3.1 암살롬의 반란	68
4.2.3.2 다윗의 말년	74
4.3 결론	77
5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전기적 스토리텔링	79
6 결론	88
6.1 연구결과 요약	88
6.2 연구결과 분석	89
참고문헌	92

감사의 글

지금까지의 굴곡 많았던 신앙 여정에 항상 동행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얻은 통찰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열매입니다.

이러한 통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인 변형 이론을 제시해 준 고(故) 제임스 로더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이론이 없었다면 내가 가진 통찰들은 논문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에서부터 이 논문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 배우면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관계의 끈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신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참고 인내해 주셨을 뿐 아니라 든든한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아들을 향해 보여주신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데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이 논문이 부모님께는 아들이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앙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 5

정진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신앙교육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신앙교육이 추구하는 이상과 신앙의 여정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괴리는 이상을 추구하는 신앙교육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분법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성경 속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신앙적 성공 또는 실패로 구분하여 성공은 모범으로 삼고 실패는 경계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기독교가 가진 윤리적인 측면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이 강조되면 신앙적 실패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적 실패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 그 사람은 신앙적 실패를 신앙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의 신앙적 실패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지목하시기 전까지 그가 보인 반응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적 실패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 역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비유 속의 부자에 대해 보인 반응이었다. 이처럼 이분법적 신앙관은 실패가 없을 수 없는 실제 신앙 여정의 현실과의 괴리를 낳는다. 그리고 그 괴리는 신앙에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신앙관은 신앙교육이 설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교육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해진 시간 안에 짧은 단락의 본문을 대상으로 설교자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설교에서는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모범과 경계의 사례를 구분하고 전형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교육의 모든 영역은 이러한 설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신앙 여정의 현실에서는 신앙적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며 반복된다. 성공은 실패와 연결되어 있고 실패는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와 관점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신앙 여정의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은 신앙적 성공과 실패의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이야기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신앙교육의 모델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현실의 신앙 여정을 위한 구체적인 신앙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주제,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신앙 여정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관점에서 다윗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해석하여 전기적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적 스토리텔링(biographical storytelling)은 신앙 여정 전체를 의미 있게 담아 낼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성경이나 역사 속 인물이 신앙 여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론을 요청한다.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 신앙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방법론 중 하나가 이야기 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¹ 이야기는 상상력을 통한 동일시를 통해 신적 존재와의 만남이나 초자연적 현상과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적 사건들을 전달하고 경험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 본 연구가 다루게 될 변형의 사건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성경이 이야기로 주어졌다는 점 역시 그러한 생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으로 종결되는 한 인물의 신앙 여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 즉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신앙교육에 부여하는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이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앞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새로운 최종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 연역적 추론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 로더(James E. Loder)의 변형 이론으로부터 이끌어 낸 새로운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신앙 여정의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신앙교육 모델은 신앙적 성공과 실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적 관점을 요청한다.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 신앙 여정 전체를 다루는 대표적인 이론은 파울러(James W. Fowler)의 신앙발달 이론이다.³ 그런데 신앙발달 이론은 인간 내부에 발달의 과정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발달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앙의 발달은 전 과정에 걸쳐 한 방향으로만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역행하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신앙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발달이 특정 단계에서 정체되거나 고착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발달 이론은 신앙 여정 전체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신앙의 성공과 실패 내지는 상승과

¹ 양금희, 『이야기 예술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53-66.

² 이는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가 제시한 이야기적 사고의 특징이다. 그는 인식방법으로 유형적 사고와 이야기적 사고를 제시하였다. Jerome S.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를 참고하라.

³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하강이라는 양방향의 역동적인 변화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신앙발달 이론과 동시대에 발표되어 신앙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은 로더의 변형 이론이다.⁴ 변형 이론은 회심과 같은 순간적이며 비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하지만 확신의 체험은 반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점⁵과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변형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준다는 점⁶은 변형 이론이 신앙 여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변형 이론이 가진 장점은 신앙의 역동적 변화를 다룬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변형 이론으로부터 신앙 여정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신앙적 관점, 즉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신앙 여정에 대해 어떤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 귀납적 추론을 사용할 것이다.

셋째,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신앙은 평생에 걸쳐 성공과 실패 내지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신앙교육 모델은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성경 인물을 요청한다. 다윗은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인물이다. 본 연구는 다윗이 우리와 다름 없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음을 논증하기 위하여 다윗을 다루는 성경 본문들을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관점과 방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의 독특함은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신앙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풍성하게 하여 건강한 신앙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형적 신앙의 관점과 연관된 주제를 다룬 주요

⁴ James E. Loder, *The Transforming Mo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⁵ Loder, *The Transforming Moment*, 117, 122.

⁶ James E. Loder,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 유명복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423.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큰 약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로더의 변형 이론은 기독교교육의 영역 안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특수한 이론이다. 그만큼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된 변형적 신앙의 관점 역시 보편성에서의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핵심적 의도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신앙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신앙 여정에서의 통찰을 나누는 것이기에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진행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전기적 스토리텔링

2.1 용어에 대한 고찰

2.1.1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이야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단어에는 정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있고, 반대로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그 사전적 정의가 해설적으로 부여된 것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 그 정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마련인데 이야기도 그런 단어에 해당한다. 이야기의 경상도 방언은 ‘이바구’인데, 원래 형태는 ‘입아구’이다. ‘입아구’는 입의 양쪽 귀통이인 아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입의 양쪽 아귀를 놀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⁷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야기를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즐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로 정의하고 있다.⁸ 팩커(Gabriel Fackre)는 이야기를 “구성된 플롯에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갈등을 통해 결론으로 나아가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이를 포함한 다양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이야기가 대상, 즐거리(또는 플롯), 그리고 전달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 이해는 특히 전달이라는 요소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전달 형식, 전달 행위, 그리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⁷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15XX34400733> [2023년 3월 3일 최종 접속].

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3년 3월 3일 최종 접속].

⁹ Gabriel J. Fackre, *The Christian Stor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78), 5: 양금희, 『이야기 예술 기독교교육』, 14에서 재인용.

수도 있는 전달 의도와 성격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알려주는 말” 이나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과 같은 이야기 정의는 전달이라는 요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단어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야기의 전달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텔링(telling)’ 에 적합한 우리말은 ‘담화’ 로 이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¹⁰을 의미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은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모호하여 혼용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포함하며,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정된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태어나며, 새로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해지고 보존되는 순환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스토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론화된 구조물로 존재하며 스토리와 담화의 구분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개념 사이의 차이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좋은 예를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에 관한 김영래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이다.¹²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내용 역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기에 청자에게 쉼마의 자세를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¹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3년 3월 3일 최종 접속].

¹¹ Barbara Hernstein Smith, “Afterthoughts on Narrative. III. Narrative Versions, Narrative Theories,” *Critical Inquiry* 7 (1980), 213: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서울: 해냄, 2014), 286에서 재인용.

¹²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 161-164.

요소는 “청자의 스토리텔링”이다.¹³ 이는 성경의 표면적 이야기 뿐 아니라 잠재적 이야기를 실천하도록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성경교육에서 행해지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전달과 수용의 과정에서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도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의 구분된 선택이 적절하다. 또 하나의 예는 본 논문이 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에 관한 본문들 중 변형적 신앙이라는 특정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본문들을 선택하여 전기(biography)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성경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변형적 신앙이라는 자세를 요청하는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이 하고자 하는 작업을 이야기가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1.2 전기(biography)

전기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다.¹⁴ 전기는 한편으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루기에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와 전기 작성의 의도를 독창적이고 감동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상상력이 발휘되는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전기는 조사(弔辭)와 묘비문을 작성하는 데서 기원한 가장 오래된 문학장르로 여겨진다. 고전적으로는 왕과 위대한 지도자들이 역사 기술의 일부로서 전기 작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개인의 일상생활이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은 16 세기가 지나서다. 그리고 전기가 대상 인물이 속했던 사회와 제도를 이해하는 수단이었다면, 대상 인물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신분석과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¹³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166-168.

¹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3년 3월 3일 최종 접속].

그 중 이야기 심리학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이야기 심리학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Homo Farans)로 이해한다. 따라서 한 인간의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그 인간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이야기의 구조와 인간의 심리학적 구조는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과 전체성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⁵ 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이야기 심리학의 방법론은 심리전기적 방법론(psychobiography)이다. 에릭슨(Erik Erikson)의 청년 루터와 간디에 대한 연구는 심리전기적 방법론을 통한 인간 삶의 이야기적 연구의 고전에 속한다. 에릭슨의 인간연구 방법론을 잘 발달시키고 소화시킨 학자로 평가되는 메카담스(Dan P. McAdams)는 심리전기적 방법론을 “단편적이고 흩어져 있는 한 인간의 삶의 전기적 자료들을 통전되고 선명한 하나의 이야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심리학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하였다.¹⁶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전기의 특징들은 적용되기 힘들지 모른다. 왜냐하면 전기 작성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성경은 이미 성경 저자의 집필의도와 신학적 관점에 의해 가공된 2차 자료이기 때문이다. 2차 자료만을 재료로 하여 전기를 작성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세계 안에서만 유효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체 안에서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인물들 중 한 명이다. 또한 다윗의 심리와 신앙의 단면을 드러내 주는 시편의 자료들은 그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¹⁵ 정석환, "이야기 심리학과 목회상담," 「신학논총」 4 (1998), 205-206.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심리학의 여러 방법론 중 이야기 심리학에 대한 메카담스(Dan P. McAdams)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¹⁶ D. P. McAdams and R. L. Ochberg, "Psychobiography and Life Narr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56 (1988), 2; 정석환, "이야기심리학의 심리전기적 인간탐구 방법론 연구," 「신학논단」 26 (1999), 252에서 재인용.

제한적이거나 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성경 인물의 전기 작성은 가능한 일이며 그것의 기독교교육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2.2 신앙교육과 전기적 스토리텔링

2.2.1 성경 읽기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우주적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⁷ 뉴비긴은 인간의 이야기와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우주적 이야기를 대비시킴으로써 우주가 이야기를 만들며 이야기가 우리를 선택한다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트(N. T. Wright)는 성경의 신적 드라마는 “온 세상에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공적 진리이다.” 라고 했다.¹⁸ 루글린(Gelard Loughlin)은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것에 흥미를 보이며(omnivorous), 현실의 극복을 추구한다” 라고 했다.¹⁹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내가 속한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답할 수 있다” 라고 했다.²⁰

우주가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며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하며 인간의 존재에 답을 주는 공적 진리를 담은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즉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¹⁷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15: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75 (2012), 313 에서 재인용.

¹⁸ N. T.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London: SPCK, 1992), 40: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3 에서 재인용.

¹⁹ Gerard Loughlin, *Telling God's Story: Bible, Church, and Narrative Th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7: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3 에서 재인용.

²⁰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216: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3-314 에서 재인용.

읽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즉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영래는 이러한 경향에 기여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²¹ 첫째, 성경은 완벽하게 짜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전통적인 소설처럼 주의 깊게 꾸며진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은 이야기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비설화적 자료와 함께 불규칙하게 모아진 이야기들이다.”²² 둘째, 성경은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본질적으로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기도, 시, 법, 윤리적 교훈 등을 포함하고 있다”²³ 셋째,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에 상응하는 [역사적] 실재를 가지고 있다.²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데 장애가 되는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는데 성경 인물의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대상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본문들이 하나의 플롯 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설화적 본문들과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본문들과 역사적 기사 등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배경, 인물의 생각이나 독백, 화자의 해설과 같은 요소 안으로 흡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기 작가가 의도한 플롯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어떤 것은 선택되고 어떤 것은 배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²¹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5.

²² Richard Bauckham, *Bible and Mission: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Baker, 2003), 92; Ibid., 315 에서 재인용.

²³ Lesslie Newbigin,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95), 81;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5 에서 재인용.

²⁴ Gabriel Fackre, "Narrative Theology from an Evangelical Perspective" in Keith E. Yandell, *Faith and Narra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97;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5 에서 재인용.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하나의 이야기로 창조된다.²⁵ 이로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개념적인 성경과 그 개념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성경 사이에 존재하여 양자를 매개하고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독자나 학습자는 전기적 스토리텔링에 포함되지 않은 본문들을 접할 때 그것들을 전기적 플롯과의 관련성 안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 연결의 확장은 전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단락 중심의 성경 읽기와 관련이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단락 중심의 성경 읽기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단락 중심의 성경읽기는 단면적인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단면적인 사건을 통해 인물들의 단면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단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독자들의 상상력에 열려 있으며 그것을 자극한다. 이러한 점은 독자와 본문 속 인물이나 상황과의 동일시를 불러일으키고 실존적 만남을 경험하게 하며 전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유리하다.²⁶ 성경 이야기 중에 단면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삭개오 이야기를 들 수 있다.²⁷ 삭개오는 오직 해당 단락에만 등장하며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이 주어진다. 따라서 독자는 이 간단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은 단면성이 아닌 구속사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경 읽기는 많은

²⁵ 뢰피르(Paul Ricoeur)에 의하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사건들로부터 시간적인 연합을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곧 의미의 연결을 창조함을 의미한다. Paul Ricoeur,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Time and Narrative, v.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²⁶ 각주 2 참고.

²⁷ 누가복음 19 장 1-10 절.

정보들과 전후의 연속성으로 인해 단면적 성경 읽기가 제공하는 장점들을 상당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읽기는 단면적 성경 읽기가 제공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성경 읽기 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두 가지 성경 읽기 방식을 매개할 수 있다. 한 성경 인물의 인생은 전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성경 인물 한 사람의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완결된 플롯을 위해 선택된 이야기들을 다루기에 각 이야기의 단면성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독자 중심의 성경 읽기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의 깨어진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2 인생 읽기

한 사람의 일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고, 영광과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에 대해 의식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의미를 성찰한다는 것은 ‘인생은 무엇이며 나는 왜 사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앞에 마주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질문 안에 공허, 즉 죽음의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배제하고는 삶의 의미를 논할 수 없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첨예하게 죽음의 문제와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²⁸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이 진실은 과거와 현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었으며 공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죽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서 삶과 죽음은 나뉘어져 있으며, 죽음은 점점 더 금기시되고 있다.²⁹ 죽음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주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³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죽음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죽음을 삶의 과정의 하나로 자연스럽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 안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사건들이 죽음과의 연결을 통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의미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그 안에서 명시적인 삶의 이야기와 암시적인 죽음의 이야기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갖는 특권이다.

죽음과 연결되어 창조된 새로운 의미는 익숙한 가치들을 다시 평가하게 한다. 이 시대가 “긍정하는 주된 가치들인 건강, 아름다움, 능력, 성취, 성공과 같은

²⁸ Arthur Kleinman et al., 『사회적 고통』 안종설 역 (서울: 그린비, 2002), 145f; 김홍연, "죽음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목회』 28 (2007), 306에서 재인용.

²⁹ 김홍연, "죽음과 기독교교육," 309-310. 저자는 그 이유로 낮아진 사망률, 의학적 진보에 대한 믿음, 임종과 장례가 병원과 대행기관에서 치러진다는 점, 그로 인해 죽음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며 개인적인 것이 된 점, 죽음으로부터 아이들을 차단함으로써 죽음의 문제에 대한 회피가 대물림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³⁰ Kleinman et al., 『사회적 고통』: Ibid., 311에서 재인용.

³¹ 각주 25 참고.

것들은 죽음을 통합하기 보다는 제거한다. 그러나 죽음이 제거되어지면 삶은 과도한 요구 앞에 서게 된다. 즉, 죽음을 간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일이다.”³²

죽음의 통합은 세상이 긍정하는 가치들보다 더 귀하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가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한 인물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인물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죽음을 긍정하고 통합하는 교육적 힘을 가지고 있다.

2.2.3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읽기

이야기는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 초월적인 차원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상징체계가 형성되고 변형된다. 그리고 이 상징체계에 맞게 삶의 이야기를 통합시키는 활동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은 초월적인 이야기와 끊임없는 만남을 본질적으로 요청하는 전생애적 과정이며, 신앙의 성장이란 우리가 경험한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신앙적 플롯으로 엮어낼 수 있는 이야기 능력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성경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매개하는 신앙의 상징체계 역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개별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는 전체 이야기에 하나의 방향과 성격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에 연결된다. 파울러는 인간의 의미체계에 결정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마스터 스토리” 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활동적인 힘의

³² 김홍연, "죽음과 기독교교육," 311-312.

³³ 양금희, 『이야기 예술 기독교교육』, 54-55.

패턴이 된다고 하였다.³⁴ 이 마스터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

신앙교육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궁극적 이야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이 어떤 이야기이든 이 궁극적인 이야기와의 관련성 안에서 그 의미가 발견되고 경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진정한 신앙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경험하며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주 안에서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기부인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가장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의식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야기 양식은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며 삶의 유사성으로 설득하는 우뇌적 사고 양식으로, 이는 논쟁을 통해 논리로 설득하는 좌뇌적 사고인 유형적 양식과 대비된다.³⁵ 이야기 양식은 의식의 저항을 지나쳐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무엇보다 신앙의 위인들의 삶이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그들의 삶이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의식의 저항의 논리를 무력화시킨다. 여기서 잠시 죽음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혼은 불멸하기에 죽음은 단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육체와 영혼의 단일성을

³⁴ Fowler, *Stages of Faith*, 28.

³⁵ 각주 2 참고.

특징으로 하는 구약의 인간 이해와는 다르다.³⁶ 영혼불멸의 사상은 죽음의 잔혹함을 간과하게 만든다.³⁷ 죽음은 미래에 있을 부활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한 존재의 종말인 것이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한 인물의 이야기이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죽음 앞에서 한 인물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이로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의 한 부분임이 드러난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는 숙명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얻은, 한 개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통시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안에서 구속사의 정점에 놓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한다.

³⁶ 김홍연, "죽음과 기독교교육," 314.

³⁷ Otto Kaiser and Eduard Lohse, 『죽음 그리고 삶』 박두환 역 (성남: 민들레책방, 2002), 147-167; Ibid., 314 에서 재인용.

3 변형과 신앙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앙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 사랑 · 의뢰심을 갖는 일” 또는 좀더 간략히 “믿고 받드는 일”이다.³⁸ 이처럼 신앙의 개념은 신앙의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태도나 행위를 포함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맺는 신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³⁹

니버(H. Richard Niebuhr)는 신앙을 입방체로 표현한 적이 있다.⁴⁰ 입방체는 여러 개의 면을 가지고 있기에 동시에 입방체의 모든 면을 볼 수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머(Richard R. Osmer)는 신앙의 많은 측면 중에서 네 가지 측면 즉, 하나님에 대한 신념(belief),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relationship), 하나님을 향한 헌신(commitment),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mystery)를 교수방법의 핵심적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⁴¹ 또한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측면은 기독교교육이 다양한 접근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종교 교수 이론은 신앙적 지식을 효과적인 전수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적 성숙 이론은 학습자 개인의 신앙 성장과 영적

³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3년 3월 3일 최종 접속].

³⁹ Richard R.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4.

⁴⁰ H. Richard Niebuhr, *Faith on Earth* ed. Richard R. Niebuhr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2;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24에서 재인용.

⁴¹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성숙을 목적으로 삼으며, 신앙공동체 이론은 회중을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변혁 이론은 정의와 사랑이 숨쉬는 하나님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⁴²

그렇다면 전기적 스토리텔링 속에 담긴 성경 인물의 일생을 통해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측면 내지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신앙의 변화일 것이다. 신앙의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은 발달과 변형이다. 신앙발달 이론은 파울러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신앙은 미분화된 신앙, 직관적/투사적 신앙, 신화적/문자적 신앙, 종합적/인습적 신앙, 개별적/반성적 신앙, 결합적 신앙, 보편적 신앙의 7 단계를 따라 발달한다.⁴³ 그런데 발달의 과정은 단계들의 순서를 역행할 수 없고 건너 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울러의 연속적인 신앙발달의 개념은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의 영향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잘 보여준다.⁴⁴ 파울러에게 신앙은 인간이 가치를 둘 수 있는 대상이나 환경을 추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능동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과 환경의 상대적 구조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발달이라는 측면은 다윗의 신앙의 전기적 스토리텔링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은

⁴² 고원석 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3), 54-57. 이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Jack L. Seymour, 『기독교교육의 지도 그리기』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⁴³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66-73.

⁴⁴ Ibid., 109-115.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역동적인 변화의 패턴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변화를 담아내기에 더 적합한 측면은 변형일 것이다. 파울러와 동시대에 활동한 로더는 변형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이론을 제시하며 파울러와 학문적 논쟁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변형이라는 개념은 로더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영성의 전통 안에서 “영성 형성 혹은 영성 수련은 ‘변형’ 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 왔다. J. M. Dettoni 는 영성형성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존재의 핵을 전혀 다른 존재로 변형(transformed)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⁵ 또한 변형은 회심과도 통하는 개념이다. 클라크(W. H. Clark)가 제시한 회심의 네 단계인 불안의 단계, 위기 또는 폭발의 단계, 화해의 단계, 표현의 단계는 로더가 제시한 변형의 다섯 단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⁴⁶ 로더의 이론은 자신의 회심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신앙성장에 있어서 회심적 차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기한 이론이다.”⁴⁷ 그리고 철학자 가다머(H. G. Gadamer)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를 “변화(Veränderung)” 와 “변형(Verwandlung)” 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변화가 내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들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변형이란 단순한 외형의 변화를 넘어서서 내적인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⁸ 로더는 이처럼 영성, 회심, 내적 본질의 변화 등과 같이 다소 추상적인

⁴⁵ 양금희, "영성형성의 변형적 이미지를 통해서 본 기독교교육적 변형의 과제," 「장신논단」 21 (2004), 356-357.

⁴⁶ 김재영, " '심리적' 종교심리학의 회심이론," 「종교연구」 33 (2003), 28-33.

⁴⁷ 김대인, "James W. Fowler 의 신앙발달이론과 James E. Loder 의 변형이론을 통한 기독교교양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신학과 복음」 7 (2019), 74.

⁴⁸ H. 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1965(2), 106; 양금희, "영성형성의 변형적 이미지를 통해서 본 기독교교육적 변형의 과제," 355 에서 재인용.

개념으로 여겨지던 변형을 이론화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의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는 전기적 스토리텔링 안에서 다윗의 신앙의 변화를 변형적 측면에서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로더의 변형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로더의 변형 이론: 변형의 논리와 4차원의 변형

이 단락은 로더가 경험한 확신의 체험 이야기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일련의 연구들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 가을의 어느 토요일,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던 로더는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캠핑카를 몰고 뉴저지 프린스턴 시를 떠나 캐나다의 퀘벡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뉴욕 근처를 지나가던 중 그는 고장난 차와 씨름하고 있는 한 중년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를 돕기 위해 길가에 차를 세웠다. 다행히 펑크난 왼쪽 앞 타이어를 교체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브레이크의 파열음이 차 뒤에서 들려왔다. 졸음운전을 하던 차가 그만 로더가 수리하던 차를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로더는 차에 깔렸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첫마디가 잘려 나갔으며 나중에 갈비뼈 골절과 왼쪽 폐의 출혈이 확인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차 아래에서 빠져나오면서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굳은 확신과 함께 생명에 대한 걱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첫째로 그는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번째로 그 사고에는 필경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생명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물결이 그를 덮고 있었던 것이다.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병원에서 그에게 힘을 준 것은 복도에 걸려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약속과 초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었다. 그는 수술장에서 긴장한 의료진을 위로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어 추가적인 치료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⁴⁹

⁴⁹ James E. Loder,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 이기춘, 김성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11-19를 요약한 것임.

로더는 이 체험이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2년 동안이나 부정하려고 했으며, 이 사건이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그가 무시하며 그토록 멀어지려고 했던 실재(reality) 앞으로 그를 내세웠으며 그가 그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확신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연구의 첫번째 열매가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The Transforming Moment)』이다.⁵⁰ 이 책에서 로더는 변형의 논리를 다섯 단계로 제시한다.⁵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회심의 단계와 그 구조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로더의 이론이 탁월한 것은 변형을 인식의 사건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이다. 갈등은 “인식 행위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단절이 생겨날 때 시작된다.”⁵² 인간의 본성은 인식의 진공 상태를 메우기 위해 작용한다. 만약 갈등이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부에 항상 있었지만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했던 문제의 경우라면 그것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인식 사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탐사를 위한 중간 단계(interlude for scanning)이다. “이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을 가지고 그 갈등상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의력은 적어도 한순간이나마 그 문제 자체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⁵³ 이 단계는 기다리는 단계이며, 그러는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검토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상상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때 흔히

⁵⁰ 동일 역자에 의한 역본이 『삶이 변형되는 순간』(1988),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2001)의 두 판본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⁵¹ Loder,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 63-68.

⁵² Ibid., 63.

⁵³ Ibid., 64.

확신을 갖게 해 주는 통찰이나 직관이나 비전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상에서 나타나게 되며, 그것들은 우리의 의식이 곧바로 채택하여 쓸 수 있도록 매우 긴요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⁵⁴ 이 단계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준거의 틀이 합쳐지는 “재결합”(bisociation)⁵⁵이 일어나며 그 결과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제시된다. 이 단계에서 상상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에너지가 방출되며, 인식자가 관계상황에 자신을 개방하는 단계이다. 에너지의 방출은 무의식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 작업이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증거이다. 자기 개방은 이제 자기 초월의 행동을 향한 자유를 얻었음에 대한 의식의 반응이다. “아하, 그렇지!” 라는 탄성은 이 단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해석의 단계이다. 상상력에 의해 도출해 낸 해결 방안을 과거의 문제 상황에 적용해보며 또 미래의 가능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공공화 및 합의 도출을 해보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향의 해석이 일치하게 될 때 사건은 완료된다. 로더가 체험한 확신의 사건을 변형의 논리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 사고를 통해 활성화된 상상력이 가져온 통찰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지속되어온 실재에 대한 인식의 단절이라는 갈등을 해결하였고 자기 개방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The Transforming Moment)』은 그 해석의 과정을 담고 있다.

로더는 과학적 인식, 심미적 인식, 정신요법적 인식과 또 다른 인식 유형들도 이 변형의 논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⁵⁶ 또한 변형의 논리는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발견과 성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영감이나 깨달음의

⁵⁴ Ibid., 64-65.

⁵⁵ A. Koestler, *The Creative Act* (New York: Macmillan, 1967): Loder,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 65에서 재인용.

⁵⁶ Loder,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 75-111.

순간들에서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로더가 체험한 확신의 사건은 다양한 변형의 사건들과 무엇이 다른가? 로더는 인식 사건의 4 중성 또는 4 차원의 변형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⁵⁷ 4 개의 차원은 세계, 자아, 공허 그리고 거룩을 가리킨다. 1 차원의 세계는 삶이 영위되는 세계이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환경 그 자체이다. 또한 세계는 변형이 일어나는 현장이며 새로운 인식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단절이 발생하는 곳이다. 2 차원의 자아는 환경에 속한 존재로 인식자이며 동시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초월자이다. 3 차원의 공허 또는 비존재의 가능성은 죽음, 죄, 외로움, 무의미와 같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이다. 4 차원의 거룩은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이며 “인간 존재들이 변형적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의 ‘세계’ 를 재구성하려 할 때, 그의 상상력에서 우리나라 오는 이미지들을 통해 인간 존재를 변형시키며 본래 모습대로 복원시키는 존재 그 자체의 현현인 것이다.”⁵⁸

로더는 하이데거, 프로이트,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해서 인간의 실존적 차원, 즉 공허(void)의 차원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차원인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에게는 사회과학이 말하는, 세계와 자아로 구성된 이차원적 인간 이해가 다루지 못하는 공허의 차원이 드리워 있으며, 공허의 차원에서 거룩의 차원으로서의 변형은 인간 능력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이다. 인간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이다. 따라서 4 차원의 변형은 서로

⁵⁷ Ibid., 120-156.

⁵⁸ Ibid., 155.

필연적으로 얽혀 있고 서로 지탱해주는 것으로 성과 속, 하나님과 인간이 교차하고 중복되는 독특한 기독교교육 인식의 공간으로 이해된다.⁵⁹

3.2 변형과 신앙 여정

우리는 로더가 체험한 확신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5 단계의 변형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변형의 논리를 따르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4 차원의 변형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개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로더가 체험한 확신의 사건은 인생에서 두 번 경험하기 힘든, 일회적인 사건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회심의 유형이 보여주고 있는 원형적 특성 중 하나가 회심은 단 한 번 일어나고, 일단 일어나면 영원히 존속된다는 점과 상응한다.⁶⁰ 반면 신앙은 평생을 걸쳐 이어지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4 차원의 변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회심에 비판적인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한 점진적인 회심의 특성 중 하나가 회심은 영원하지 않고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상응한다.⁶¹

확신 체험의 일회성과 반복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다.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적 관점에서는 일회성이 더 강조될 것이고,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선 반복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⁶² 이 두가지가 모순되지

⁵⁹ James E. Loder, *성령과 인간 변화(1)*,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992), 277-280; 김은주, "제임스 로더(James E. Loder)의 기독교교육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적용: 중년기 생애의 재구성을 위한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56 (2018), 109에서 재인용.

⁶⁰ Ralph W. Hood et al.,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6), 279; 김재영, " '심리적' 종교심리학의 회심이론," 26에서 재인용.

⁶¹ 김재영, " '심리적' 종교심리학의 회심이론," 26-27.

⁶² David Rutledge, "James Loder's Redemptive Transformation in Practical Theology," *Tradition & Discovery* 42 (2016), 58.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둘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더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일회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확신 체험의 일회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인식이 생겨남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이 인식은 없다가 새롭게 생겨 난 것이며 한 번 생기면 다시 획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확신 체험의 반복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획득된 인식이 확신으로 반복 경험되어야 함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번째 확신의 체험 이후 거기서 얻은 인식을 확신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확신의 체험이 필요하다. 첫번째 확신의 체험과 이후 반복되어야 할 확신의 체험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인간 의지의 개입 여부에 있다. 첫번째 확신의 체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의 개입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어야 할 확신의 체험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3.2.1 확신과 갈등의 순환

변형 이론으로 신앙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신 체험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확신의 효과가 지속되고 어떻게 감쇠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변형의 논리에 대한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전제는 변형의 논리의 5 단계인 해석은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더는 상상력에 의해 도출해 낸 해결 방안에 의한 과거와 미래 두가지 방향의 해석이 일치하게 될 때 변형의 사건은 완료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해석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4 차원의 변형의 사건은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인 해석의 과정에 열려 있다. 앞서 우리는 로더의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The Transforming Moment)』이 그가 체험한

확신의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열매라고 언급하였다. 그의 확신 체험과 이 책의 출판 사이에 10여년의 간격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더 나아가 로더는 일생에 걸쳐 확신의 체험에서 얻은 통찰을 인간발달의 영역과 사회구원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기독교교육 안에서 통합하고자 하였다.⁶³ 두 번째 전제는 갈등은 반복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던 갈등도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전제들을 변형의 논리에 적용하면, 한 번 시작된 변형의 논리의 주기는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기들을 생성하며 결코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확신의 체험 이후의 상황으로 들어가보자. 확신의 체험은 상상력을 매개로 하며, 의식의 아래에 숨겨져 있던 무의식적 갈등의 해소이며, 거룩이라는 실재와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우뇌에 의해 인식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확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감쇠하며 확신의 인식은 명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는 좌뇌에 의한 인식이다. 같은 확신의 체험이 우뇌와 좌뇌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 이해하는데 로더의 언급이 도움이 된다: “거룩성의 깊은 뜻을 알게 해 주지 못하는 확신 체험은 확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체험 속에서 우리들은 확신케 하는 주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⁶⁴ 명제 안에 확신케 하는 주체가 주어나 목적어로 등장하더라도 그 명제를 떠올리는 사람이 그 주체와의 관계 안에서 확신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명제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⁶³ 김은주, "제임스 로더(James E. Loder)의 기독교교육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적용: 중년기 생애의 재구성을 위한 접근," 104.

⁶⁴ Loder,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 155-156.

그렇다면 확신에서 명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뇌과학이 부분적이거나 여기에 대답을 줄 수 있다. 우선 화학물질의 작용을 들 수 있다.

“지난 40 여 년간 계속되어 온 사랑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느끼는 흥분, 행복, 편안함, 심지어 책임감 등 사랑의 감정이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다.”⁶⁵

도파민이나 페닐에틸아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열정에 들뜬 상태는 흥분과 기쁨을 주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그 감정의 정체가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한 일종의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려 든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감정에 ‘내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 내성이 나타나는 기간은 특정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후 대략 3년 정도가 지나서라고 알려져 있다.⁶⁶

또한 뇌의 본능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어떠한 내용이 본능과 부딪힌다면 그것을 고의로 무시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뇌가 생존을 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⁷ 이런 근거들을 확신의 체험에 적용해보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분명 뇌가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낭비하게 했다. 그런데 확신의 체험이 주는 강력한 확신과 그에 동반되는 긍정적인 감정들 역시 일종의 스트레스이며 뇌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갈등도 없고 흥분도 없는 기저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결과 벅차오르던 확신은

⁶⁵ 원종우, "과학이 설명하는 사랑의 유효기간," 『월간 샘터』 576 (2018), 56.

⁶⁶ Ibid., 55.

⁶⁷ Margaret Heffernan, 『의도적 눈감기』 김학영 역 (과주: 푸른숲, 2013). 저자는 익숙함, 사랑, 이데올로기, 한계, 현상유지, 복종, 순응, 방관, 거리, 보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의도적 눈감기를 뇌과학적 증거들을 동원하여 뇌가 적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명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꾸준하게 유지되는 패턴이 아니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전망하게 해준다.

이렇게 확신이 명제로 전환되면서 다시 갈등이 일어난다. 이 갈등은 확신의 체험 전에 있던 갈등과는 다르다. 그때의 갈등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갈등이었다면 지금의 갈등은 이미 명제로 알고 있는 답을 확신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괴리에서 오는 갈등이다. 이는 우뇌적 인식의 단절에 의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갈등은 좌뇌적 사고에서 우뇌적 사고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이는 유형적 양식의 사고에서 이야기 양식의 사고로, 논리적 사고에서 은유와 상징을 활용하는 사고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 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뇌는 기저상태에서 흥분상태로 옮겨가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전환이 무의식에 억압해 두었던 공허를 다시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올려 경험해야 하는 고통도 학습되었다. 이러한 뇌의 본능과 의식의 저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매개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번째 확신의 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외적인 매개체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뇌적 사고, 은유와 상징을 활용하는 사고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이 이야기의 힘이다. 사고 전환의 매개체로서 이야기의 예로 가까이는 자신의 확신의 체험을 들 수 있다. 기억을 회상하는 사고의 과정은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확신의 체험을 경험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그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변형에 참여한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의 보고이다.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이야기는 그 깊은 곳에 본질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에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에 연결될 때 4 차원의 변형을 매개할 수 있다.

3.2.2 4 차원의 변형을 위한 신앙적 요소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에서 확신으로 올라가고 확신에서 다시 갈등으로 내려오는 순환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순환의 구조를 평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신앙은 평생에 걸쳐 갈등과 확신 사이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여기서 상승과 하강은 변형이라는 신앙의 한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신앙 전체에 대한 평가나 구원의 여부를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임에는 틀림없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강 없이 지속적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상을 붙들게 되면 신앙의 하강을 인정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척하는 위선에 빠질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예를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셨다. 상승을 뒤따르는 하강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전제를 받아들이면, 이상적인 신앙은 하강이 장기화되기 전에 상승으로의 전환을 일으킬 것이다. 하강이 장기화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상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을 피하는 방향으로 “비겁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상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그런 현재의 상태를 점점 정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 곡선의 하강이 장기화 되기 전에 상승으로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습관을 따른다는 것은 필요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성찰이 필요한 모든 때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갈등은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찰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면 스스로 상승으로의 전환의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습관을 따른 성찰을 통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후라도 그것을 발견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야기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갈등을 발견하는 것, 이야기 안에서 은유와 상징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은 4차원의 변형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왜냐하면 4차원의 변형은 나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갈등을 발견하는 것은 이야기 속으로의 몰입과 성찰의 자세를 요청한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명확하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구체적인 갈등은 그 기저에 있는 본질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 드러난 갈등을 그 근원을 향하여 탐색해 들어가면 어느 지점에서는 자신의 본질적 갈등과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안에서 은유와 상징을 발견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 다른 이야기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은 이 연결고리를

통해 결정적인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이야기 안에서 십자가나 대속의 은유와 상징을 발견하면 바로 결정적인 이야기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연결되어 있어 전체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들 안에서 상상력을 통해 결정적인 은유와 상징을 발견하려고 애쓰다 보면 점점 더 다양한 이야기 연결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하강을 상승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신앙의 습관과 이야기능력은 분명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속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안에서 4 차원의 변형을 경험하게 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신앙의 상승과 하강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것들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자신의 신앙의 운명을 맡길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솔직하게 평가하고, 그 상태가 가져올 미래를 예상하며, 그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하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언제나 인정한다는 것이요, 상승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3.3 변형적 신앙의 관점

신앙이 “입방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관점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신앙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변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신앙(줄여서 변형적 신앙)의 관점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언제나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이 전제가 없다면 변형적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그 전제 아래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앙적 실패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사건 자체 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신앙적 나태함이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한 사건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독자가 자신의 이야기와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신앙적 나태함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신앙적 실패를 확신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 드러나기 전까지의 다윗의 부인하는 태도는 갈등을 심화시켰지만 이후의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는 변형을 향한 상승의 동력이 되었다.

위대한 신앙적 성취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변형적 관점에서는 사건 자체 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신앙적 성실함이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윗이 이룬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업적들은 위대하다. 하지만 변형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신앙의 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윗이 이룬 성취들을 독자가 자신의 이야기와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의 신앙적

성실함은 누구나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된다. 또한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성취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강의 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현재를 언제나 갈등과 확신이라는 반대되는 두 상태 어디로든지 하강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는 상태로 본다.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이 성공과 실패 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정해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고 4 차원의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신앙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한다는 개념은 파울러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신앙의 발달은 보편적 신앙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단계들은 건너뛰거나 역행할 수는 없다. 물론 회심과 같은 상황이 각 단계에서 성취되지 못한 발달적 과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 하였지만 말이다.⁶⁸ 이러한 발달 개념의 일방향성과는 달리 변형적 신앙은 얼마든지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의 발달이라는 개념은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굳이 발달, 성장, 또는 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습관과 이야기 능력이라는 측면에 해당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정한 주기를 따라 자기를 성찰하는 신앙의 습관을 얼마나 몸에 배게 했느냐, 그리고 술한 상상과 연결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도달하는 능력을 얼마나 체득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사용되지 않는 기술은 곧 날카로움을

⁶⁸ 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446-452.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은 발달이나 성장의 개념보다는 훈련 내지는 극기(克己)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형적 신앙의 관점이 전기적 스토리텔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성공 지향적 내지는 미래 지향적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것은 성찰 지향적이며 현재 지향적이다. 다시 말하면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현재 이 순간의 성찰을 통해 죽음을 통과하고 거룩한 실재 안에 거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현재는 카이로스를 향해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은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변형적 신앙의 관점의 특성은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응한다. 앞선 2장에서 우리는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처음부터 이미 죽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전기적 스토리텔링의 모든 부분에는 죽음이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기적 스토리텔링의 어느 부분도 기본적으로 현재와 성찰에 친화적이다. 또한 우리는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며 주인공의 죽음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런 점은 변형적 신앙의 관점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가 자신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연결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응한다.

4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한 다윗

4.1 심리학적 성서 해석의 관점

변형적 관점은 심리학적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변형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은 갈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인간의 내면 심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심리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변형적 관점에서 성서 속 인물에 접근하려면 심리학적 관점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먼저 심리학과 성서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시도하려는 작업이 어떤 면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과 성서 사이에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 시대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 왔다.⁶⁹ 심리학적 성서 비평의 다양한 연구 분야들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학자는 웨인 롤린스(Wayne G. Rollins)인데, 그가 *Soul and Psyche*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는 11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⁷⁰ 이를 단순화하면

⁶⁹ Franz Delitzsch, *A System of Biblical Psychology* (Edinburgh: T & T Clark, 1867), 3f: 오우성, 『성서와 심리학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3에서 재인용.

⁷⁰ Wayne G. Rollins, *Soul and Psych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이형원, 『구약성서비평학입문』 (서울: 침례신학대출판부, 1995), 396-398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연구 분야로 ‘특정한 본문 양식에 대한 심리학적 주석’과 ‘성서 인물들의 심리학적 분석’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심리학적 성서 해석의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세 가지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성서적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 그리고 심리학적 성서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성서적 심리학은 인간 심리나 심리학에 대한 성서적 해석이며,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성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이다. 이 양자간에는 끊임없는 대화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기독교 상담은 이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 이론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⁷¹

이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은 심리학적 성서 해석이다.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본문이 변천한 과정, 본문이 생성되고 다른 본문과 결합되어 최종 본문을 이룬 역사의 추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경의 최종 본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문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저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심리 상황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그린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⁷² 이러한 면에서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성경 본문이 묘사하는 인물의 자아를 하나의 단일체로 받아들이고 분석한다.⁷³

그런데 역사적 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허상을 분석하는 허망한 일일 수 있다. 역사적 비평의 관점은 하나의 본문 안에 여러 저자나 편집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들이 탄생시킨 등장인물은 하나의 인물에 대한 여러 전승이 모여 결합된 인물에 해당한다.⁷⁴ 이러한 관점은 등장인물이나 저자에 대한 분열된 자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비평의 관점의 극단에는 다윗 왕이 실존인물이 아니라 후대 이스라엘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이상적인 왕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⁷⁵ 이러한 역사적 비평의 관점은 성경의 최종

⁷¹ 오우성, 『성서와 심리학의 대화』, 89.

⁷² D. Andrew Kille, *Psychological Biblical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10: 김선중, "다윗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Canon & Culture* 7 (2013), 122.

⁷³ 김선중, "다윗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122.

⁷⁴ *Ibid.*, 122.

⁷⁵ *Ibid.*, 121.

본문에 나타난 인물, 즉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인물로부터 건강한 신앙의 가르침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존재 이유와 모순을 일으킨다. “심리학적 성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심리학이 인간의 감추어진 무의식 세계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진면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이기 때문이다.⁷⁶

이처럼 심리적 성서 해석과 역사적 비평의 관점은 서로 모순되면서 동시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한 모든 입장과 관점을 총괄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가진 존재와 인식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심리적 성경 해석의 관점을 선택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또한 역사적 비평이 제시하는 한계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2 다윗 본문 해석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그만큼 자세히 다루어지는 인물 중 하나이다. 이는 전기적 스토리텔링을 위해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다윗은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위한 좋은 모델이다. 여기서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을 만하거나 혹은 성공적인 신앙을 보여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는 실제 신앙 여정의 흥망성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은혜를 입은 인물이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타락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⁷⁶ 오우성, 『성서와 심리학의 대화』, 128.

회복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이렇듯 다윗은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인물 중 가장 큰 폭의 상승과 하강을 경험한 인물일 것이다. 따라서 다윗의 일생이야말로 변형적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스토리텔링 대상임에 틀림없다.

4.2.1 출생에서 사울의 죽음까지

4.2.1.1 다윗의 유년시절과 기름 부음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의 탄생과 유년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세, 사무엘,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야기들이 각 인물들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윗을 다루고자 할 때 이러한 점은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현대 심리학의 개념에서 볼 때 유아기에서 유년기에 이르는 시기에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 맺는 관계가 그 사람의 평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통해 아이의 정서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만큼 내적 결핍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윗을 다루려고 할 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상당한 내적 결핍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한 추측의 근거로 거론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 중인 그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만형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냉랭했다는 점이다. 셋째, 막내인 다윗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점이다.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창 31:39-40). 또한 다윗 자신의 말에 의하면 때때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과도 싸워야 했다(삼상 17:34-35). 넷째, 그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점이다(시편 51:5).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사건에 대한 회개를 담고 있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⁷ 죄성이라는 것이 내적 결핍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고백은 내적 결핍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사무엘상 17:12)” 이었기에 막내 아들 다윗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⁷⁸ 사무엘이 아들들을 부르라고 한 자리에 다윗을 제외시킨 것이 만약 양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윗이 양치는 일을 멈추도록 한 것은 분명 이새가 상대적으로 큰 아들들을 그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방향의 추정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왕에게 의탁하는 장면에서 “부모” 로(삼상 22:4), 시편에서 “주의 여종” 으로 잠시 언급될 뿐이다(시편 86:16; 116:16).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정을 여기서 더 다루지는 않겠지만, 성경 본문 안에서 다윗의 어머니가 관찰되는 않는 점은 실제로 다윗이 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하며 자랐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⁷⁷ 이재현, 『성경 속의 심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9), 251.

⁷⁸ Ibid., 226.

이와 같은 추측에 반박하는 근거들도 존재하는데,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상황적 맥락에서 볼 때 언급한 상황들이 내적 결핍을 단정할 만큼 그리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이였기에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을 거라는 추측이나, 만형 엘리압의 냉랭한 태도는 장자인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다.⁷⁹ 실제로 다윗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가 그의 인격형성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역기능적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다.⁸⁰ 한 발 더 나아가 다윗이 어린 시절의 모습, 예를 들어 만형 엘리압의 냉랭한 질책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높은 분화도의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⁸¹은 이러한 반박을 지지한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경험한 ‘적절한’ 결핍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⁸²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확신의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확신 체험의 사건은 내적 갈등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깊을 때 일어나는 것이 전형적이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 16:13)” 고 소개하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적절한’ 것 보다는 더 심각한 결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⁷⁹ 반대로 엘리압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무엘상 16 장과 17 장의 독자적인 전승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Ralph W. Klein, 『사무엘상』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287.

⁸⁰ 이재현, 『성경 속의 심리학』, 231.

⁸¹ 김지연, 김정아, 김용태, "다윗의 분화수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 (2014), 39.

⁸² 이재현, 『성경 속의 심리학』, 231-235.

있다. 하지만 그 심각한 결핍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심각한 결핍과 그로 인한 깊은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변형적 신앙의 관점이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 갖는 차별점이다. 심리학적 관점은 결핍과 갈등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일에 집중한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해결의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결핍과 갈등 속에서 그 본질인 공허를 발견하는 일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4차원의 변형이라는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는 소년 다윗의 공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광야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하는 힘든 곳이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가족의 냉대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그의 십대 시절을 광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⁸³ 광야는 내적 갈등에 닿아 있는 공허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인생은 무엇이며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곳이다. 광야에서 다윗의 공허함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확신의 체험이 일어날 시간도 점점 가까워진다. 이 결정적인 대목은 성경 본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상상력을 동원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⁸⁴

4.2.1.2 골리앗을 넘어 승승장구하다

다윗은 확신의 체험, 곧 기름 부음의 사건 이후 사울 왕의 악사 및 무기 관리하는 심부름꾼과 양을 치는 목자의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통근자로 살게 된다.⁸⁵ 확신의 체험 이후 다윗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생겼지만 그의 삶에 주목받을

⁸³ Ibid., 225.

⁸⁴ 본 논문 80 페이지에서 확인하라.

⁸⁵ Klein, 『사무엘상』, 312.

만한 큰 변화는 없었다. 다윗이 실제 왕이 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의한 두 번째 기름 부음과 열두 지파에 의한 세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했다.⁸⁶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삼상 16:21)” 는 것 역시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단지 악사로서의 그의 재능을 사랑하였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⁸⁷ 그런데 다윗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는 참전 중인 형들과 그들의 지휘관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 증표를 받아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진영을 찾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때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 전열에서 올라온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과 도전을 적절한 신학적 관점 속에 내놓는다.⁸⁸ 왜냐하면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도전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 왕의 비겁하고 확신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며 골리앗과의 대결을 군사적 충돌에서 신학적 대결로 전환시킨다.⁸⁹ 무기와 보호장구도 없이 물매 하나로 나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이 승리로 인해 다윗은 왕의 아들 요나단, 즉 사울의 명백한 상속자의 지지를 확보했다. 더구나 요나단은 자신의 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암묵적으로 계승권을 그에게 넘겨주는 행위였다.⁹⁰ 심부름 온 소년은 이제 사울 왕이 군사 업무를 맡기기에 충분한 성인으로 인정되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이야기에선 예언자적인 메시지로 군사들을 독려하는 신탁자, 거인과

⁸⁶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185~187.

⁸⁷ 이재현, 『성경 속의 심리학』, 233.

⁸⁸ Klein, 『사무엘상』, 313.

⁸⁹ Ibid., 316.

⁹⁰ Ibid., 319.

싸우러 나가는 영웅으로 변모하는 신화적 구성변화가 나타난다.⁹¹ 사울이 여전히 명목상의 왕이었으나,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⁹²

우리는 소년 다윗이 본문 내내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감탄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다윗을 전투에 부적합한 자로 보았던 사울도 그의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 앞에서 골리앗과의 대결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했을까? 본문은 다윗의 입을 통해 양을 치는 동안 사자나 곰과 싸우며 양을 지켜낸 경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이다(삼상 17:34-37). 사울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자각시키며 더 강한 확신으로 나아갔을 것이다.⁹³ 하지만 그러한 설명도 그의 담대함을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다윗의 확신을 좀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다. 현재 다윗은 확신의 체험에서 얻은 확신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우뇌적 사고와 이야기 사고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과거의 명제가 아니라 현재적 확신으로 다윗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말과 행동은 마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다윗이 마치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모든 상황을 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다윗의 신앙이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⁹¹ 여한구, " '자기 개혁' 으로 본 다윗과 사울의 대화분석(삼상 17:31-40)," 「신학과 실천」 78 (2022), 370.

⁹² Klein, 『사무엘상』, 320.

⁹³ 여한구, " '자기 개혁' 으로 본 다윗과 사울의 대화분석(삼상 17:31-40)," 371.

이러한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은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일체감으로 모든 일에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로 인해 다윗이 스스로 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성공의 열매들이 그의 앞으로 맺히고 있는 이 상황은 어쩌면 다윗의 신앙 여정의 정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문제를 예견할 수 있다.

4차원의 변형은 갈등에서 출발하여 공허를 통과하여 거룩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갈등을 다루지 않으면 4차원의 변형도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형통한 상황에는 갈등의 요소가 별로 없다. 확신 체험의 반복을 통해 계속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생한 확신의 인식은 점점 화석화 된 명제로 변해가게 된다. 그리고 명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런 상황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윗이 확신의 체험을 할 때 스스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였다. 즉, 이제부터 다윗이 스스로 이 갈등 상황을 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확신의 체험도 처음이었듯이 거기로부터의 하강도 처음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신앙은 막 출발선을 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나라의 요직을 맡아 바빠진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던 ‘광야’를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유가 없는 바쁜 삶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신앙곡선이 머지않아 하강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은 고난과 훈련이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 다윗을 기다리는 것은 진짜 광야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2.1.3 사울에게 쫓기다

다윗의 승승장구는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이미 사울은 왕위를 빼앗길 것을 선고받았고,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버렸다. 이제 민심마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며 사울은 자신의 분노를 다윗에게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는 30 살까지 사울을 피해 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도피 기간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 그의 신앙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피 기간 동안 다윗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배경에는 고난이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보편적인 인식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포기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인격적인 측면이 아닌 고도로 정치적인 계산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자칫 반역을 통해 왕위를 차지하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⁴ 따라서 이러한 외적인 모습은 그 진정성을 보장해 줄 내면적 증거를 요청한다. 다행히도 성경은 시편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다윗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하고 있다.

시편 중에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 중에는 다윗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 제목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와 그 번역이 다윗의 저자성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⁹⁵ 하지만

⁹⁴ 김선중, "다윗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129.

⁹⁵ Peter C. Craigie, 『시편』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0), 28-34.

그러한 논쟁은 본 연구의 관심사는 아니다. 성경의 최종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입장은 시편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주옥같은 시편들을 역사적 배경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확신의 체험 이후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이제 고난과 갈등의 깊은 하강곡면을 맞게 된다. 따라서 도피 시기의 이야기에서 본 연구의 관심은 다윗이 4 차원의 변형의 경험을 통해 상승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전환의 경험은 향후 다윗의 변형적 신앙의 여정에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도피 시기의 이야기를 각 배경에 해당하는 시편과 함께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다. 그것이 실패하자 사울은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고 암살자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기도 했다. 시편 59 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 . .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 . .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 . .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시편 59:1,3,12,17)

이 시편에서 다윗과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리앗과의 대결 대목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였기에 외적 요인이 있었지만 갈등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개입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 다윗의

외적 갈등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기인한 것이지만 내적 갈등은 하나님과의 분리에 기인한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라는 명제와 그렇지 않은 현실의 경험 사이의 괴리가 바로 다윗의 내적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한 다윗의 해법은 자신의 의로움과 대적들의 악함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정당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신이 의롭다는 다윗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문제는 ‘의로운’ 다윗의 당연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악한’ 분이 된다는 것이다.

미갈의 도움으로 암살자들로부터 도망한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뒤로하고 이제 긴 도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빵과 칼을 얻은 후 블레셋 가드로 도피하였으나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겨우 살아남는다. 시편 56 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 . .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 . .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시편 56:2-4,8,13)

여기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불의를 언급하지만 자신의 의를 언급하지는 않으며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13 절에서 사망에 메인 자신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는 점은 4 차원의 변형을 향한 전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되는데 여기로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많은 무리가 몰려와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 이후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한 후 예언자 갓의 말을 따라 아둘람 동굴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놉 땅의 사람들을 도액의 손을 통해 학살한다.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두 차례 묻고 출정하여 그일라를 구한다. 하지만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두 차례 묻고 그일라를 떠나 십 광야로 향한다. 요나단은 십 광야 호레쉬에서 다윗을 만나 그를 격려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준다. 십 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으나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린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엔게디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벤다. 시편 57 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⁹⁶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 . .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시편 57:1-3,7-11)

⁹⁶ 굴이 아둘람에 있는 것인지 엔게디에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동굴을 엔게디 동굴로 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의 신앙의 변화를 스토리텔링 하는데 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아둘람 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arvin E. Tate, 『시편』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2), 153.

여기에서도 외적 갈등에 대한 언급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부터 반복해서 등장하는 “은혜” 라는 표현은 그 관계를 잘 보여준다. 구원을 요청하는 그의 호소는 담담해 보인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후반부에서 큰 반전이 일어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⁹⁷ 또한 다윗이 말한 “내 영광”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새로운 자기에 대한 벅찬 느낌을 담고 있다.⁹⁸ 이러한 표현들은 4차원의 변형을 통해 거룩을 경험한 새로운 자아가 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자기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자기대상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안에 새로운 자기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헛은 이 과정을 변형적 내면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이라고 부른다.⁹⁹ 다윗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주실 구원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것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본다.

이후 다윗은 자신을 잡기 위해 하길라에 진치고 있던 사울을 다시 한번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시글락 마을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다윗을 참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의 군대를 돌려보낸다. 돌아와보니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지나간 것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추격 여부를 묻고 그들을 추격하여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찾아온다. 한편

⁹⁷ Tate, 『시편』, 156.

⁹⁸ Ibid., 157.

⁹⁹ 홍이화,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80.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하게 된다.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4.2.2 왕이 된 후 밋세바 사건까지

4.2.2.1 왕이 된 후 밋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간다.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 살 때의 일이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에 의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는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된다. 요압, 아비세, 아사헬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로 다윗에게는 조카들이다. 사울의 후궁을 범한 일로 이스보셋과 불화가 있던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려 마음먹고 다윗과 회담을 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내려왔다. 마침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유인하여 죽인다.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다. 이 일로 다윗은 공공연하게 아브넬을 애도하고 요압을 저주한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삼하 3:37)” 는 성경 본문은 다윗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하게 해준다. 당시 상황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죽였다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오해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참하였으므로 다윗이나 하나님의 보복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도를 넘은 저주는 정치적 의도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삼하 3:28-29)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실제로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죽였다거나¹⁰⁰ 다윗을 정당화하기 위한 후대 편집자의 해설이라는¹⁰¹ 해석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윗이 요압을 매우 심하게 저주하면서도 그를 처벌하거나 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경 본문은 다윗 자신의 입을 통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삼하 3:39)”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두 사람 관계는 피로 연결된 사이이지만 정치적 세계에서는 묘하게 서로 경쟁 관계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² 하지만 힘이 없어 정당한 처벌도 할 수 없는 상대에게 그토록 심각한 저주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¹⁰³ 따라서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요압을 한편으로는 미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내칠 수 없는 애증의 갈등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¹⁰⁴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윗의 일생동안 지속된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요압은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외적이며 동시에 내적인 갈등 요인이기 때문이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요압은 다윗의 자아(ego)의

¹⁰⁰ James C. Vanderkam, "Davidic Complicity in the Deaths of Abner and Eshbaal: A Historical and Radactional Stud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 (1980), 522; 장일선, "다윗과 요압," 『현대와 신학』 10 (1985), 2.3) 단락에서 재인용. 장일선의 논문은 텍스트로만 검색이 가능하여 페이지를 알 수 없음.

¹⁰¹ A. A. Anderson, 『사무엘하』 권대영 역 (서울: 솔로몬, 2001), 133.

¹⁰² 장일선, "다윗과 요압," 2.3) 단락.

¹⁰³ Anderson, 『사무엘하』, 142.

¹⁰⁴ 장일선, "다윗과 요압," 2.3) 단락.

그림자(shadow)로 설명될 수 있다. 다윗의 어두운 면은 요압에게 투사되고, 요압은 그것을 대신 표출하는 것이다.¹⁰⁵ 이런 관계의 전형을 우리야를 죽이는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관계에 있는 다윗과 요압의 갈등은 곧 다윗의 자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는 강력한 외적 갈등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4 차원의 변형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그것은 외적 갈등으로부터 그것과 연결된 내적 갈등을 발견하고 거기서 공허를 통과하여 거룩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강력한 외적 갈등 요인은 사라졌고 다윗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윗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외적 갈등이나 깊이 감추어진 내적 갈등으로부터 4 차원의 변형에 도달하는, 한 단계 심화된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도피 시기의 광야 대신 다윗에게 주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요압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압과의 갈등을 통해서 다윗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밋세바 사건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아브넬이 죽은 후 이스보셋마저 그의 부관들에게 살해당하며 다윗은 자연스럽게 통일국가의 왕이 된다. 이는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아나를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윗은 통일국가의 수도로 삼기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이 과정에서 요압은 전공을 세워 전군 사령관에 오른다.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윗은 도피 시기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를 돕기에 앞서서, 그리고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을

¹⁰⁵ 박종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5), 357-358.

추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 또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 본문의 자리에 여부스 사람들을 앞장서서 무찌르는 사람을 전군 사령관으로 삼겠다는 다윗의 말이 있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 대목을 바로 뒤따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 5:10)” 라는 해설은 다윗의 신앙의 상태를 보증해주는 것일까?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 신호이다. 그것은 이미 신앙의 하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윗의 신앙의 상태는 조심스럽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다윗에게 기대하는 것은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4 차원의 변형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이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벽을 다시 둘러쌓고 왕궁을 건축한다. 두로왕 히람은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을 보내 왕궁 건축을 돕는다. 이 시기의 다윗의 신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편이 있다. 시편 30 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은 “다윗의 집”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므로 그 번역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¹⁰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윗의 집” 을 성전이 아닌 다윗의 왕궁으로 보는 입장을 채택하고자 한다.¹⁰⁷ 어떤 입장을 택하든지 시편

¹⁰⁶ Craigie, 『시편』, 338.

¹⁰⁷ 같은 입장을 채택한 경우로 다음을 참고하라. 고영길, 『다윗 실록』 (서울: 홍성사, 2013), 154-155.

30 편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시 및 찬양시로서 그 내용은 제목과 관련성이 없다.¹⁰⁸ 시편 30 편을 여기서 다루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병과 치유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시편 30 편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변형적 신앙의 패턴을 잘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1-4 절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 5-10 절에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회상하며 11-12 절에서 다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 특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와 ”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시편 30:7)” 의 두 구절에는 신앙의 상승과 하강의 과정이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신앙의 여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 과 ‘얼굴을 가리심’ 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피 시기의 초기에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노염’ 과 ‘얼굴을 가리심’ 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 그것이 ‘노염’ 과 ‘얼굴을 가리심’ 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성찰을 통해 갈등으로부터 공허를 통과하여 기록에 이르는 4 차원의 변형의 반복의 결과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 과 ‘얼굴을 가리심’ 이 저주가 아니라 4 차원의 변형으로 이끌기 위한 선물임을 안다. 그리고 마침내 4 차원의 변형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¹⁰⁸ Craigie, 「시편」, 339-340.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시편 30:11-
12)

이 시편은 다윗의 신병의 치유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시편 30 편을 다윗의 전기적 스토리텔링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두 차례에 걸쳐
쳐들어왔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전쟁을 행하여 그들을 물리쳤고
이제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관찰된다. 먼저 다윗이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위대한 신앙적 사건으로 기술되고 있는 이 일에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유일한 순간은 불미스러운
사건에서였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에서 소들이 끄는 수레가
사용되었다.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고, 옷사는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일이 일어났다. 분명히 이
불미스러운 일은 “옷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삼하 6:7)”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 이제라도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의 시행 여부가 아닌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 방법은 곧 파악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 시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 신호가 켜졌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셨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추정해보면 현재 다윗의 신앙은 하강하고 있으며, 4차원의 변형을 향한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제와 그것이 체험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골랐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가야 했다. 하나님의 궤는 명제화된 다윗의 신앙의 상징이다.

이후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된다. 이 사실은 당시 다윗의 변형적 신앙을 추정해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당시 하나님의 궤를 이동식 성막이 아닌 고정된 건축물 안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윗은 이 혁신적인 생각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도발적인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이다.¹⁰⁹ 아마도 그 상상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자신의 이야기를 성찰하는데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궤와 성막에 대한 율법의 이야기들을 거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신 12:11)”에 대한 이야기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하신

¹⁰⁹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서울: 통독원, 2020), 28.

아브라함 이야기에까지 도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찰하며 이야기의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의 핵심에 도달하는 변형적 신앙의 두가지 요소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 태도로부터 예측할 수 있듯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야기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정 반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다. 무척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집과 나라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윗이 낳을 아들이 하게 될 것이며, 그가 영원한 약속을 이어갈 것임을 알려주신다. 이는 메시아 사상이 출현하는 순간이다. 이 위대한 사건은 오직 하나님과 다윗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서 조용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 안에는 온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이 참여할 것이 예고되고 있다. 이 사건은 분명 다윗의 신앙 여정에서 별과 같이 반짝이는 가장 위대한 순간일 것이다.

4.2.2.2 밋세바 사건

내적 기반을 공고히 다진 다윗은 이제 주변의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을 정복해 나간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다. 한편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길르앗에 살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암몬 왕 나하스의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했으나 나하스의 아들 하눈은 그들을 첩자로 여겨 수치를 주고 쫓아내 버렸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한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였다. 해가 바뀌어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다윗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군을 보내어 암몬을 격파하고 랍바성을 포위하였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된다. 다윗은 지붕에서 잠을 잤을 것이며 비교적 높은 그 곳에서 그는 이웃집과 마당을 훤히 내려다보았을 것이다.¹¹⁰ 다윗은 종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켰고, 그는 다윗의 신하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라고 보고한다. 아마도 좋은 그 보고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윗은 전령을 통해 그녀를 데려오게 한다. 다윗은 마침 임신의 적기에 있던 밋세바와 동침한다.¹¹¹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긴 원인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대한 신앙인’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일이 다윗의 남은 인생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윗이란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의 일탈의 원인이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승리에 도취되어 나태해진 정신상태에서 나타난 욕망의 잉태, 안목의 정욕, 승리로 인한 자신감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¹¹² 심리학적으로는 두 얼굴, 두 인격, 또는 두 자기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윗의 어두운 면을 설명하려는 관점이 있다. 이재현은 두 가지 자기 개념으로 다윗의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처럼 다윗 역시 두 가지 자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숙한 신앙적 자기이며 다른 하나는 내적 결핍에 매여 있는 미성숙한 자기라는 것이다.¹¹³ 우리는 앞서 어린 다윗의 성장 과정에 상당한 내적 결핍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¹¹⁰ Anderson, 『사무엘하』, 269.

¹¹¹ Ibid., 270. 생리 기간이 통상적인 일주일이라면 정결법에 따라 목욕하는 시점은 생리 시작 후 2주가 되는 시점이다. 생리 주기가 통상적인 4주라면 이 시점은 배란일에 해당한다.

¹¹² 김지연, 김정아, 김용태, "다윗의 분화수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45.

¹¹³ 이재현, 『성경 속 인물들의 심리학적 분석과 재해석』, 245.

있다. 내적 결핍은 공허감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반응을 유발하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를 형성한다. 다윗의 경우 방어기제는 바로 모험적인(risk-taking)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⁴ 그가 어려서 고평과 사자와 싸워 양들을 지킨 것, 싸움과 전쟁에 적극적이고 용맹했던 것, 그리고 그의 잔인한 성격도 이러한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는 자신의 모험적인 성향을 충족시켜 줄만 한 상황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직접 출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러므로 다윗의 내적 결핍은 이제 새로운 모험적인 상황을 요청한다. 성적인 모험(sexual risk-taking)은 흔히 내면의 불안과 공격성이 외적으로 발현될 기회가 적어질 때 그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¹¹⁵ 이 설명에 의하면 밋세바 사건은 어린 시절 다윗 안에 형성된 내적 결핍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김지연 등은 밋세바 사건의 원인을 다윗의 일시적인 환경 변화에서 찾고 있다.¹¹⁶ 연구자들은 먼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높은 기본적 분화수준을 보여준다고 논증한 후 이러한 전제로부터 밋세바 사건은 다윗의 기능적 분화수준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다. 일시적으로 다윗의 기능적 분화수준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정략결혼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소원한 결혼관계라는 것이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데 세 명의 여인(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런 다윗의 결혼 이면에 온갖 정치적 술수들과 비정한 배신, 그리고 도덕적 문제점들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¹¹⁷ 또 다른 이유로는

¹¹⁴ Ibid., 246.

¹¹⁵ Ibid., 247.

¹¹⁶ 김지연, 김정아, 김용태, "다윗의 분화수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43-47.

¹¹⁷ J. D. Levenson and B. Halpern, "The Political Import of David's Marriag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 (1980), 507-518; Ibid., 43에서 재인용.

국력신장과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이 주는 공허함과 허전함이라는 것이다.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은 것은 다윗 왕정이 정주왕정(sedentary monarchy)으로 탈바꿈한 결과로 볼 수 있다.¹¹⁸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용맹스럽던 전사 다윗이 한적한 궁정생활을 하는 왕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다윗에게 공허함과 허전함이 몰려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는 욕구가 영적인 나태함과 결합하여 기능적 분화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적인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들 모두 단독으로는 다윗의 일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모든 관점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이러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다윗의 일탈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다윗에게 일어난 환경적 변화는 외적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내적 결핍을 자극함으로써 인해 내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다윗의 부부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 이 갈등과 긴장은 4차원의 변형, 즉 확신의 체험을 통해서만 온전히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윗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다면, 그는 자신 안에 고조되어가는 미세한 내적 갈등을 감지하고 파헤치고 드러내어 그것을 직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허를 통과하여 거룩에 이르는 4차원의 변형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서 우리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변형적 신앙의 훈련을 받아 왔음과 변형적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는 신앙 곡선의 하강을 반복해서

¹¹⁸ Joel Rosenberg, "The Institutional Matrix of Treachery in 2 Samuel 11," *Semeia* 46 (1989), 104-116; 김지연, 김정아, 김용태, "다윗의 분화수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45에서 재인용.

경험했지만 또한 4 차원의 변형을 통해 상승의 전환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왔다.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한 순간에 무너졌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그 이유는 4 차원의 변형을 통해 도달한 확신의 인식이 속히 명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오랜 신앙의 훈련이나 연륜도 이 전환을 막거나 지연시키지 못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세밀하게 성찰하지 않고는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형적 신앙의 핵심적 덕목은 필요가 아닌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습관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몸에 베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형적 신앙의 훈련이 다윗의 내적 결핍은 치유하지 못했는지 질문할 수 있다. 로더는 4 차원의 변형이 연대기적 시간을 초월하여 발달과정에서 일어난 결함을 치유해 준다고 보았다.¹¹⁹ 그런데 그가 상담한 헬렌의 사례를 보면 그녀의 치유의 과정에는 상담자의 지속적인 도움, 3 년여의 시간,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들의 호응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¹²⁰ 물론 거기서 치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이재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는 인간 내면의 문제에는 결국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 . . 그 남은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¹ 변형적 신앙의 관점도 내적 결핍의 치유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치유의 동력이 4 차원의 변형에 의한 확신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동력은 지속되지

¹¹⁹ Loder,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 423.

¹²⁰ Ibid., 71-82.

¹²¹ 이재현, 『성경 속 인물들의 심리학적 분석과 재해석』, 247.

않고 감쇠하며 명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변형적 신앙의 훈련을 받아온 다윗이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확신의 여부와 정도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내적 결핍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후 밋세바는 다윗에게 임신했음을 알려온다. 다윗은 밋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야를 전장에서 소환한다. 하지만 그를 집으로 보내 아내 밋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다윗의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야를 돌려보내며 요압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한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다. 요압은 이 명령을 다윗의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이행하고 다윗에게 보고한다. 밋세바와의 간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요압을 이용해 우리야를 죽게 한 것이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연속적으로 일어난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구분된다. 간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윗이 받을 대가는 어찌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포로 후기 기간 동안에는 간음한 아내들이 이혼은 당할 망정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호 2 장; 램 3:6-14);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재판정도 왕을 재판하고 유죄로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직 남편만이 고소할 권리가 있었다고 한다면(참조. 민 5:11-15) 우리야는 다윗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¹²²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기로만 결단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우리야를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살인의 대가는 다윗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¹²² Anderson, 『사무엘하』, 273.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왜 우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했는가이다. 이 결정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명예를 주신 하나님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하나님을 택할 경우 명예 회복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포기할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을 할 당시 다윗의 내면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갈등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험되지 않을 때 갈등한다. 4차원의 변형은 이 영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반대로 인간의 육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때 갈등한다. 이 육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죄를 망각할 때 완화되는데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두 갈등의 싸움에서 영의 갈등이 육의 갈등을 극복해야 4차원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육의 갈등이 너무 커서 이기게 되면 4차원의 변형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에 대한 의식이 매우 흐려지므로 생각과 판단이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다. 그는 간음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으며 이 위기가 유발하는 갈등은 이제껏 다윗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 갈등은 다윗을 삼켜버렸고 그를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맹인과 같이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성경 본문에서 마치 다윗이 죄와 하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골리앗과 싸우는 대목에서 그가 마치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던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이 주는 교훈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죄의 덫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일으키는 갈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않도록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4차원의 변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습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는데 있어 요압의 존재가 결정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서 우리는 요압이 다윗의 자아의 그림자임을 언급한 바 있다. 자신과 한 몸이 되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둠의 일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은 우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은 밋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만큼 요압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데 담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이었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은 다윗이 요압과의 관계를 진작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애증의 갈등 관계임을 살펴 보았다. 다윗은 요압과의 외적 갈등을 통해 자신의 내적 결핍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4차원의 변형에 도달하는 매우 좋은 성찰의 통로가 된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성찰을 통해 4차원의 변형의 경험을 반복했다면 요압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재설정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야의 장례가 끝난 후 다윗은 밋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고 밋세바는 결국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부자가 자신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한 가난한 사람의 전재산과도 같은, 자식같이 아끼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부자가 죽어야 마땅하다며 분노한다. 하지만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고 더 베풀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겨 칼로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한다. 그러자 나단은 즉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기에 다윗이 죽지 않겠지만 대신 밋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을 예고한다.

다윗은 나단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에 대해 도에 넘게 분노하며 비난한다. 껌씹하기는 하지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의 죄값을 생명과 결부시킬 수는 없다. 다윗의 이러한 과도한 반응은 자신 안에 그 비유가 가리키는 죄를 숨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자신과 동일한 잘못을 한 사람을 적반하장으로 강하게 매도하는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외재화(externalization) 또는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라고 부른다.¹²³ 이를 볼 때 우리야를 죽인 후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스스로를 자기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죄의 갈등 속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다가가셨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형벌은 얼핏 보면 저주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윗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상당한 값이 지불되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그 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아이가 살아 있다면 다윗은 아마도 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참혹한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시편 51 편의 제목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¹²³ 이재현, 『성경 속 인물들의 심리학적 분석과 재해석』, 249-250.

때”이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고백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이
 내적 결핍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욕망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사실을 통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⁴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이 고백은 그가 4차원의 변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하강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 죄인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로 이어진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대목은 4차원의 변형의 과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허를 통과하여 거룩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를 부인하는데서 죄를 인정하는데로, 그리고 더 악한 죄도
 얼마든지 지을 가능성이 있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깨닫는데로 나아간다. 그 깨달음의
 끝에 있는 것은 공허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비존재의 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존재인지 이미 알고 계셨을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범죄한 후에도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다. 형벌이
 내려지긴 했지만 거기에 자신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다윗은 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자원하게 된다. 이 과정의 핵심은 이미 선포된 용서 안에서
 공허를 향해 깊이 내려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¹²⁴ Ibid., 250.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비존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알고 있다. 변형적 신앙의 두 가지 핵심 중 하나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나아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죄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4차원의 변형의 통로이다.

나단이 돌아간 후 하나님은 아이를 치셨고, 그는 병들어 7일만에 죽고 말았다. 그러나 다윗과 밋세바는 다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4.2.3 압살롬의 반란에서 죽음까지

4.2.3.1 압살롬의 반란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의 집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그의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것이다. 다말이 말한 것처럼 암논과 다말의 결혼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이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¹²⁵ 출애굽기 22:16-17에 비추어 볼 때, 암논의 악행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한 것이었으며 이론상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처녀와 결혼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신 22:28-29).¹²⁶ 율법상

¹²⁵ Anderson, 『사무엘하』, 301. 이 사건을 근친상간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McCarter 를 예로 들 수 있다.

¹²⁶ Ibid., 301.

강간자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딸을 주는 것을 거절할 수는 있었다(출 22:17).¹²⁷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을 범한 것보다 그 후 자신을 내쫓아 수치를 주는 것이 더 악하다는 다말의 말은 수궁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암논과 다말의 아버지가 동일인이라는 데 있다. 이는 암논이 다말과의 결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암논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암논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이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을 암논과 압살롬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더 나아가 두 사람 사이에 왕위 계승과 관련된 갈등을 배경으로 살펴봐야 함을 의미한다.^{128, 129} 어쨌거나 암논은 여전히 왕위 계승자로 남았고, 다윗은 화를 내긴 했지만(삼하 13:21) 암논의 간교한 범행과 다말의 수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¹³⁰ 따라서 압살롬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선택이 없으므로 시므온이나 레위와 같이(창 34:30-31) 자신의 손으로 법을 집행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하다.¹³¹ 그렇게 압살롬은 2년을 조용히 기다려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갓집인 그술의 달매왕에게로 도피한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암논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으로 변하였다. 이를 눈치챈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말의 뒷에 걸리도록 하였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한다. 하지만

¹²⁷ Ibid., 301.

¹²⁸ Ibid., 298.

¹²⁹ 이종근, "히타이트 텔리피누 칙령(Telipinu Edict)과 고대 이스라엘의 왕위계승," 「구약논단」 18 (2012), 178-204; 이영미, "그날 이후, 분노하는 다윗 궁정의 남자들과 침묵의 카르텔," 「기독교사상」 755 (2021), 146에서 재인용.

¹³⁰ Anderson, 『사무엘하』, 301.

¹³¹ Ibid., 302-303.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의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으로 보인다.¹³² 압살롬은 자신을 돌아오도록 도운 요압을 통해 아버지 다윗을 뵙고자 했으나 요압은 피하기만 하였다. 아마도 요압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에 더 이상 쓸모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주기를 꺼리게 된 것 같다.¹³³ 답답한 압살롬은 요압의 발에 불을 지르는 강수를 두고서야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된다. 암논이 죽은 지 5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절하고 들은 입을 맞춘다. 구약에서 입맞춤은 언제나 애정이나 환영의 몸짓이었다.¹³⁴ 하지만 그 만남 이후 압살롬은 반역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다. 압살롬은 이 만남 이후 자신이 합법적으로는 왕권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은 다윗과 다윗 집안의 문제를 잘 보여주며, 그 문제가 절정으로 드러나는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일부다처 가족들의 역기능은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윗의 집안에 부인들 간의 그리고 이복형제들 간의 경쟁과 시기 및 질투가 상존하고 있었을 것임은 일부다처제 가정의 역기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¹³⁵ 이러한 역기능 가정에서 아버지인 다윗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가족의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¹³⁶ 다윗이 이런 모습을

¹³² Ibid., 326.

¹³³ Ibid., 325.

¹³⁴ Ibid., 326.

¹³⁵ 김태두, "다윗 왕의 역기능 가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이해와 적용," 「복음과 상담」 28 (2020), 113.

¹³⁶ Ibid., 118.

보이는 배경에는 내적 결핍, 방어기제, 우유부단한 성격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밋세바 사건과 관련하여 받았을 일생일대의 신앙적 충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혹한 죄인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통과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안팎으로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집안의 칼과 재앙으로 예고된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려야 했다. 즉, 다윗은 그 사건을 전후로 신앙적으로,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윗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여 가능한 최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혹한 죄인으로서 자신은 누구를 징계할 자격이 없기에 악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집안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며 다윗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이 갖는 장점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그것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공허를 통과하기 위해 내려가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흔한 오류 중 하나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망각해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큰 유익이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공허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해서 거룩으로의 상승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허로 치우친 신앙 정서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신앙적 우울증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 시간이 흘러 자신의 죄와 관련된 생생한 기억이 희미해질 필요가 있다. 생생한 기억의 감쇠가 확신의 체험 후에 신앙

곡선의 하강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인이었지만 이제 그 반대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더하여 요구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록의 경험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다. 다윗이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철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모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이러한 사실과 기억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태까지의 신앙의 훈련이 공허에 도달하는 과정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지금의 신앙의 훈련은 기록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강조점이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형적 신앙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록이다.

압살롬은 송사를 가지고 왕을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4년 동안 반역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성공하고 점점 세력을 키워갔다. 반역이 성공한 배경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팽배해 있던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¹³⁷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아히도벨의 합류도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도록 하였을 것이다. 압살롬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을 확보하였고, 그 중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¹³⁸ 헤브론에서의 압살롬의 대관식과 예루살렘으로의 진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¹³⁷ 그 이유로 전쟁 중에 보인 다윗의 잔인함, 밧세바와의 사건, 이스라엘-유다의 왕조 이전의 요인들과 다윗에 의해 새로 생겨난 관료정치 사이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Anderson, 『사무엘하』, 332을 참고하라.

¹³⁸ Anderson, 『사무엘하』, 333.

이러한 진행 상황을 다윗이 몰랐을 리는 없다.¹³⁹ 하지만 다윗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반란군의 진군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순순히 성읍을 빠져나갔다.¹⁴⁰ 피난 중 다섯 번의 만남의 장면에서 다윗이 하는 말은 신앙적 우울증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가르사람 잇대와의 만남에서 다윗은 쫓겨난 나그네인 자신을 떠나 압살롬 “왕”의 편으로 가라고 권한다(삼하 15:19).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의 만남에서 다윗은 그들이 메고 온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고 가라고 하면서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고 말한다(삼하 15:26).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와의 만남에서 아비새가 다윗을 저주하는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나 할 자가 누구겠느냐(삼하 16:10)”라고 말한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포함한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생각하고 그 손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자 한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시편 3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시편 3:2-3).”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입성한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후세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으로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에서 진을 칠 수

¹³⁹ Ibid., 330-331.

¹⁴⁰ 이러한 상황은 반군의 군사적 힘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미 다윗은 요단 동편에 군대를 증강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요압의 군대가 이 지역에 배치되어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클 것이다. Ibid., 334을 참고하라.

있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즉각 추격해야 한다는 자신의 책략이 후세로 인해 막힘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이후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압살롬의 군대와 요압, 아비새, 잇대가 지휘하는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에서 일전을 벌이게 된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 간곡히 명령하였다.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흩어지며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에 기뻐하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삼하 18:33)” 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것이다. 다윗의 신앙적 우울증의 상태는 이 대목까지 관찰된다. 이후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유다가 앞장서 달라고 설득하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이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2.3.2 다윗의 말년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은 그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신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일곱 아들들의 생명을 내어주되 므비보셋은 지켜준다. 이로서 기근은 풀리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공의롭고, 요나단에게는 충성되며, 하나님의 뜻에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¹⁴¹

블레셋의 침략에 대응하여 다윗은 직접 출정하였으나 피곤하여 죽을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아비새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 대목(삼하 22:1-51)과 시편 18에 동시에 기록된 다윗의 감사시의 제목은

¹⁴¹ Anderson, 『사무엘하』, 417.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이다. 이 시는 다윗의 승리를 전체적으로 회고하고 있으며 과거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나 언급이 없이 아주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¹⁴² 사무엘하 본문의 위치를 구체적인 배경으로 받아들이면 다윗은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맞은 위기로 인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삼하 21:17)”라는 신하들의 말에 따라 이 전쟁을 자신의 마지막 출정으로 여기며 그동안의 전쟁을 회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다윗 자신이 참혹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이 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으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삼하 22:22-25)

이런 점은 이후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도 관찰된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 . .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으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삼하 23:3b-7)

이러한 점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는 말들에 담긴, 은혜가 아닌 율법 준수에 대한 강조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¹⁴² Ibid., 430.

후계자로 기름 부으시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참혹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언약의 상대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며 행한 두 번째 연설은 특히 인상적이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 . .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7,9b)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조건부인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영원한 언약은 조건이 없는 것이었다. 거기에도 율법과 관련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은총에 대한 조건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삼하 7:14-15)

다윗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이러한 괴리를 포로 후기에 하나님의 응보 교리를 표명하는 역대기자의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⁴³ 하지만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¹⁴³ Roddy Braun, 『역대상』 김의원 역 (서울: 솔로몬, 2001), 471-472.

설명해 볼 수 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나아가 4 차원의 변형을 경험하는 건강한 변형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건강한 변형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윗은 공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참혹한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다윗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참혹한 죄를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망각해버린 선택적 기억 장애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제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공허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기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 지속적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율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실패한 자신의 억압된 수치를 아들 솔로몬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관찰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왕상 2:3-4)

4.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신앙 여정을 선택된 사건들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신앙은 기름 부음에 이어진 확신의 체험으로부터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다. 실제의 다윗의 일생에는 우리가 관찰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반복의 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형적 신앙 곡선은 다윗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 고민스럽게 만든다. 만약 신앙이 연속적이고 일방향적인 발달의 패턴을 따른다면 그 신앙의 평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변형적 신앙 곡선의 경우 어떤 특정 시기에 높이 상승해 별과 같이

빛났다거나 또는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신앙을 대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 시기의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언제나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마지막 신앙이 명제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윗의 최종적인 신앙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신앙이 상승과 하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준다.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자신이 필요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신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용서하심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신앙’ 내지는 ‘위대한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만약 신앙에 위대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이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변형적 신앙의 관점이 강조하는 핵심이다. 다윗이 이런 변형적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 본문의 다양한 면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추정이 의미가 없지 않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독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는 열매를 통해 얻고자 의도하고자 하는 바이다.

5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전기적 스토리텔링

앞서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스토리텔링 안으로 통합해야 할 때가 되었다. 스토리텔링은 평범한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스토리텔링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성경 본문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대목을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려고 하였다. 소년 다윗의 확신의 체험 대목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상상력을 너무 구체화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그 몫을 맡기려고 의도하였다. 또한 가급적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선택된 본문들의 연결을 통해 창조되는 새로운 의미가 성경 본문을 직접 읽을 때의 그것과 괴리감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둘째, 변형적 신앙의 관점이라는 특수하고 이론적인 관점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성경 이야기 그 자체로 전달되지 못할 주제나 이론은 스토리텔링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스토리텔링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한가지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드러나길 바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설을 삽입하였으나 그 분량과 구체성을 최소화하려고 의도하였다. 셋째, 평범한 신앙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독자가 스토리텔링에 몰입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변형’은 본 논문의 핵심적 개념이지만 스토리텔링에서는 한 번만,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으로써 말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스토리텔링을 가급적 짧게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전기라는 특성상 끊거나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들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는 신앙의 상승과 하강의 반복을 담으려는 의도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스토리텔링의 분량은 이러한 타협점 근처에 있을 것이다.

오늘도 소년 다윗은 건조한 광야에서 자갈 사이나 바위 틈 아래에 듬성듬성 나 있는 풀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양떼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다윗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하인이 급하게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이다.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광야에서 이렇게 애쓰는 자신을, 아버지는 아들 중 하나로 여기지도 않으신다는 것이 아닌가? 어려서부터 마음 둘 곳 없었던 다윗은 괴로운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무엘은 다윗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반색하며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들어오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젠가 왕이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으로 인해 공허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다윗에게 광야는 더 이상 공허를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된 것이다.

기름 부음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양치는 일을 이어가던 다윗은 우연한 기회에 사울 왕의 악사와 무기를 관리하는 심부름꾼 일을 겸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의 마음이 편해졌고,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다. 다윗은 참전 중인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진영을 찾았다. 마침 그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의 전열에서 올라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도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들은 다윗은 일말의 두려움이나 갈등 없이 그와의 대결을 자원했다. 다윗의 확신에 찬 태도에 사울 왕은 그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기와 보호장구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물매 하나로 나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었다. 이날의 다윗은 마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같았다. 다윗은 이 승리로 인해 사울 왕에게 중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명망을 얻게 되었다.

이후 이어지는 다윗의 승승장구는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가 왕위를 빼앗길 것이 선고된 터였다. 이제 민심마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며 사울은 자신의 분노를 다윗에게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다. 그것이 실패하자 사울은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고 암살자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기도 했다. 미갈의 도움으로 암살자들로부터 도망한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뒤로하고 긴 도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의 고백처럼 분명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다윗의 요청은 정당해 보인다. 하지만 사울과의 갈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한때 하나인 것 같았던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거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에 응답하기를 보류하신다. 다윗은 유다를 떠나 블레셋 가드로 도피하였으나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살아남는다. 이후 다윗은 아들람

동굴로 피하는데 여기로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많은 무리가 몰려와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 이후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한 후 예언자 갓의 말을 따라 아둘람 동굴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 다시 시작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앎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만 그의 옷자락만 조용히 빼고 만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랜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며 마음이 낮아진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경험한 다윗 안에 출현한 변형된 자아의 고백일 것이다. 이후 사울은 마음을 바꾸어 다시 다윗을 잡기위해 하길라에 진 친다. 이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지만 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로 망명한다. 그곳에서 가드 왕의 신임을 얻고 시글락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 다행히도 블레셋 연합군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다윗을 참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의 군대를 돌려보낸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하게 된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간다.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살 때의 일이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에 의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는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깊이 애도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고 평화롭게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반만의 일이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기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벽을 다시

두르고 왕궁을 건설하였다. 그는 왕궁 낙성식에서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신앙의 여정에서 하강을 피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극복할 때 상승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역설을 깨달은 듯하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다. 이 일은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축제로 성대하게 행해졌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 웃사를 치신 것 외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고,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마음을 품게 된다. 이번에 다윗은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다. 이 사건은 다윗의 신앙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내적 기반을 충실히 다진 다윗은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간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다. 나하스 왕 조문단이 목욕을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된 암몬과의 전쟁은 해를 넘겨 이어졌고, 다윗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군을 보내어 암몬을 격파하고 랍바성을 포위하였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된다.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했던 것일까? 그녀가 자신의 신하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를 데려와 동침한다. 이후 밋세바는 다윗에게 임신했음을 알려온다. 다윗은 밋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야를 전장에서 소환한다. 하지만 그를

집으로 보내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다윗의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야를 돌려보내며 요압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한다. 거기에는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도록 하라는 명령이 담겨있었다. 요압은 마치 다윗의 그림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 명령을 자연스럽게 이행하고 다윗에게 보고한다. 우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었다.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야를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살인의 대가는 다윗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윗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다.

우리야의 장례가 끝난 후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비유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부자가 자신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한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과도 같은, 자식같이 아끼던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부자가 죽어야 마땅하다며 분노한다.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선언한다. 다윗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업신여겨 칼로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고 대신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을 예고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는 다윗에게 먼저 다가갔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형벌은 얼핏 보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죄에 합당한 값이 치러지기 전에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회계의 고백을 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단이 돌아간 후 하나님은 아이를 치셨고 7일만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 그러나 다윗과 밋세바는 다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의 집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그의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내쫓아 수치를 준 것이다. 다윗은 화를 내긴 했지만 암논의 간교한 범행과 다말의 수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압살롬은 2년을 조용히 기다리며 치밀하게 계획하여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인 그술의 달매왕에게로 도피한다.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암논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으로 변하였다. 이를 눈치챈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말의 뒷에 걸리도록 하였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한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답답한 압살롬은 요압의 발에 불을 지르는 강수를 두고서야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된다. 암논이 죽은 지 5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절하고 들은 입을 맞추었지만 그 만남 이후 압살롬은 반역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다. 다윗이 가족 내에서 진행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이처럼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참혹한 죄인이라는 인식과 집안의 칼과 재앙으로 예고된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려야 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신앙적 우울증의 정서는 극복해야하는 과제였다.

압살롬은 송사를 가지고 왕을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4년 동안 반역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성공하고 점점 세력을 키워갔다.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 리 없었지만 다윗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반란군의 진군 소식이 들리자 순순히 성읍을 빠져나갔다.

피난 중 만남의 장면에서 다윗이 하는 말은 신앙적 우울증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가드사람 잇대와의 만남에서 다윗은 쫓겨난 나그네인 자신을 떠나 압살롬 “왕”의 편으로 가라고 권한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의 만남에서는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고 말한다.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와의 만남에서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나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말한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입성한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후세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으로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여 길르앗에서 진을 칠 수 있었다.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은 다윗을 즉각 추격해야 한다는 자신의 책략이 후세로 인해 막힘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이후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압살롬의 군대와 요압, 아비새, 잇대가 지휘하는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에서 일전을 벌이게 된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 간곡히 명령한다.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흩어지며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에 기뻐하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후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유다가 앞장서달라고 설득하며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이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서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다윗은 3년

기근에 잘 대처한 후 블레셋의 침략에도 직접 출정하여 죽을 위기를 넘기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런데 이 때 드린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이 참혹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관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후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한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며 행한 두 번째 연설은 특히 인상적이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니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조건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영원한 언약은 조건이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아마도 다윗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참혹한 죄를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렸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억압된 감정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투사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후 다윗의 신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승과 하강,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짐의 반복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용서해주셨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간 것이다.

6 결론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전개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인물에 대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도록 하며, 인생을 죽음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게 하고, 독자의 시선을 한 인물의 스토리텔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돌리게 하는 고유한 기독교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둘째, 4차원의 변형을 통해 갈등에서 확신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로더의 변형 이론은 확신에서 갈등으로 다시 전환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인식론적 경험과 뇌과학적 근거와 결합하여 갈등과 확신 사이의 전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신앙 여정의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받아들이는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신앙적 성공의 시기에 이미 시작된 실패를 성찰하며 신앙적 실패를 4차원적 변형을 위한 도약대로 삼는다. 이러한 신앙의 관점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신앙의 태도와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도달하는 신앙의 훈련을 요청한다. 셋째,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기름 부음에서의 확신 체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유언하며 죽을 때까지 신앙적 성공과 실패 내지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입었지만 반복되는 신앙적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신앙인이었다.

6.2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전기적 스토리텔링을 사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연구에 딱 맞는 방법론이었고, 그것이 다루어야 할 기간이 신앙 여정 전체로 확장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추론해 본 전기적 스토리텔링의 가치는 단순히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확장한 것을 넘어 전기적 스토리텔링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었다.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독자 또는 청자의 사고의 지평을 성경, 인생, 그리고 우주와 시간 안에서 존재의 경계선을 향해 확장하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자극은 존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존재의 근원에게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전기적 스토리텔링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신앙교육 모델을 구현하는 데 이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적용이 가능한 모든 신앙교육의 영역에서 그것이 추구해야 할 본질을 향해 사고의 방향을 정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제시된다면 성경공부가 추구해야 할 본질로 참가자들의 생각의 방향을 정렬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전기적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처럼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신앙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것은 본 연구의 작은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 로더의 변형 이론을 주목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고려할만한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지만 변형 이론이 설명하는 신앙의 역동적인 단면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핵심에 닿아있었다. 다만 변형 이론은 갈등에서 확신으로의 전환은 다루지만 확신에서 갈등으로의 전환은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확신에서 갈등으로의 전환은 믿음

떨어졌다거나 신앙이 약해졌다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인들이라면 반복해서 경험하는 익숙한 문제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폐기해야 할 신앙 여정의 부산물이 아닌 신앙 여정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로 포함시킨 것이 본 연구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방향의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변형적 신앙의 관점은 신앙 여정의 성공과 실패 또는 상승과 하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변형 이론에서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이끌어 낸 것은 본 연구의 독창적인 이론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앙 여정에서 일어나는 상승과 하강의 반복 패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가올 신앙적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통계나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적 성공의 시기에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을 미세한 실패를 예견하며 또한 신앙적 실패의 시기에 곧 도래할 성공을 예견하는 예민한 신앙적 감각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신앙적 감각은 필요를 따르지 않고 날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며 4차원의 변형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과하려는 신앙적 태도를 요청한다. 신앙적 실패는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언제나 진행중이고 신앙적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사점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교육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신앙은 평생에 걸쳐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위대한 신앙인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신앙인 다윗의 모습은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신앙인도 없고 하찮은 신앙인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다함 없는 은혜 아래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즉 은혜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모든 성경 인물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는 성경에서 적지 않은 분량이 할애된 인물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다윗만큼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 맞추어 해석하기 적합한 인물이 없었다.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다른 성경 인물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윗의 간음과 고의적인 살인과 같은 신앙적 실패에 해당하는 허구적인 요소를 삽입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독특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 따른 성경 본문의 해석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상상과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제공하는 다윗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서사 위주이며 일부의 자료를 제외하면 다윗의 내면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상상과 추정의 도움을 받아 해석한 내용을 다시 최종적인 전기적 스토리텔링 안으로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평범한 신앙인들을 위한 신앙교육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적 스토리텔링과 성경 본문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달되는 내용이 좋아도 그것이 성경 본문과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진다면 신앙교육적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전기적 스토리텔링 안으로 변형적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한 내용을 충분히 다 옮길 수는 없었다. 물론 전기적 스토리텔링이 가져야 할 적정한 분량도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준 변수였다. 이러한 제한점은 전기적 스토리텔링을 나눈 후 변형적 신앙의 관점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토론이나 심화학습의 추가적인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어 서적

Bruner, Jerome S.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Fowler, James W.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Loder, James E. *The Transforming Mo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Ricœur, Paul,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Time and Narrative, V.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번역서적

Anderson, A. A./권대영 옮김. 『사무엘하』. 서울: 솔로몬, 2001.

Braun, Roddy/김의원 옮김. 『역대상』. 서울: 솔로몬, 2001.

Craigie, Peter C./손석태 옮김. 『시편』. 서울: 솔로몬, 2000.

Fowler, James W./사미자 옮김. 『신앙의 발달단계』. 서울: 한국장로교, 2002.

Heffernan, Margaret/김학영 옮김. 『의도적 눈감기』. 파주: 푸른숲, 2013.

Klein, Ralph W./김경열 옮김. 『사무엘상』. 서울: 솔로몬, 2004.

Loder, James E./유명복 옮김.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이기춘, 김성민 옮김. 『종교체험과 삶의 변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Osmer, Richard R./사미자 옮김.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Tate, Marvin E./손석태 옮김. 『시편』. 서울: 솔로몬, 2002.

한국어 서적

고영길. 『다윗 실록』. 서울: 홍성사, 2013.

고원석, 김도일, 박상진, 양금희, 이규민, 장신근.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3.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박종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5.

양금희. 『이야기 예술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오우성. 『성서와 심리학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서울: 해냄, 2014.

이재현. 『성경 속의 심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9.

이형원. 『구약성서비평학입문』. 서울: 침례신학대출판부, 1995.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홍이화.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Rutledge, David. "James Loder's Redemptive Transformation in Practical Theology." *Tradition & Discovery* 42 (2016), 52-60.

김대인. "James W. Fowler의 신앙발달이론과 James E. Loder의 변형이론을 통한 기독교교양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신학과 복음』 7 (2019), 59-89.

김선종. "다윗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Canon & Culture* 7 (2013), 115-41.

- 김영래.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78 (2013), 435-63.
- . "성경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75 (2012), 311-35.
- .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 159-86.
- 김은주. "제임스 로더(James E. Loder)의 기독교교육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적용: 중년기 생애의 재구성을 위한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56 (2018), 101-34.
- 김재영. "‘심리적’ 종교심리학의 회심이론." 「종교연구」 33 (2003), 17-40.
- 김지연, 김정아, 김용태. "다윗의 분화수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 (2014), 31-57.
- 김태두. "다윗 왕의 역기능 가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이해와 적용." 「복음과 상담」 28 (2020), 109-34.
- 김홍연. "죽음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목회」 28 (2007), 305-31.
- 양금희. "영성형성의 변형적 이미지를 통해서 본 기독교교육적 변형의 과제." 「장신논단」 21 (2004), 355-76.
- 여한구. "‘자기 개혁’으로 본 다윗과 사울의 대화분석(삼상 17:31-40)." 「신학과 실천」 78 (2022), 361-82.
- 원종우. "과학이 설명하는 사랑의 유효기간." 「월간 샘터」 576 (2018), 54-56.
- 이영미. "그날 이후, 분노하는 다윗 궁정의 남자들과 침묵의 카르텔." 「기독교사상」 755 (2021), 140-51.
- 장일선. "다윗과 요압." 「현대와 신학」 10 (1985), 81-100.
- 정석환. "이야기 심리학과 목회상담." 「신학논총」 4 (1998), 203-40.
- . "이야기심리학의 심리전기적 인간탐구 방법론 연구." 「신학논단」 26 (1999), 251-73.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3. 3. 3. 최종

접속]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15XX34400733>. [2023. 3. 3.

최종 접속]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inwook Chung

Place and Date of Birth: Busan, South Korea, Feb 05, 1972

Parent's Names: Yongmin Chung / Jongsoon Ba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Gaepo High School 402, Gaepo-ro, Gangnam-gu, Seoul, Korea	Diploma	Feb 10, 1990
Collegi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Korea	B.M	Feb 10, 2009
Gradu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Korea	M.P.H	Aug 10, 2009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Korea	M.div	Aug 10, 202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inwook Chung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